

단국대논술

인문계

목차

2026학년도 인문계열	3
오전 · 문제 1	3
오전 · 문제 2	9
오후 · 문제 1	16
오후 · 문제 2	22
 2025학년도 인문계열	 29
오전 · 문제 1	29
오전 · 문제 2	33
오전 · 문제 3	36
오후 · 문제 1	41
오후 · 문제 2	45
오후 · 문제 3	48
 2024학년도 인문계열	 53
오전 · 문제 1	53
오전 · 문제 2	56
오전 · 문제 3	59
오후 · 문제 1	64
오후 · 문제 2	68
오후 · 문제 3	71

2026학년도 인문계열

오전 · 문제 1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문제에 답하시오. (55점)

- 1)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250자 내외) (15점)
- 2) [가]와 [나]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사회를 위하여 [다]의 (자료1)~(자료4)에서 제시한 방안을 각각 설명하시오. (350자 내외) (20점)
- 3) [가]와 [나]의 관점에서 [라]와 [마]의 등장인물 ‘보위부 군관’과 ‘아빠’의 문제점을 설명하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하여 서술하고, [다]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남과 북, 그리고 세계인들이 자유로이 넘나들어야 할 군사분계선은 슬한 영혼들이 죽어간 거대 무덤이었다. 그 세계무덤으로부터 기나긴 세계열전·세계냉전·정전체제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세계평화를 향한 새 순과 새살이 돌아나고 있다.

……(중략)……

대체 평화란 무엇인가? 인간들의 삶에 필요한 요소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선택재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재로 나눈다면 평화는 단연 후자다. 필수재를 잃고도 선택재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 평화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평화는 내면평화(영혼평화)와 외면평화(실존평화), 개인평화와 사회평화, 나라평화와 세계평화로 구성된다. 이 여섯 평화들은 궁극적으로 개별 생명의 평화를 보장하는 인간평화로 연결돼야 한다. 즉 평화는 인간 평화(pax humanus)여야 한다. 개별 생명의 평화는 또한 모든 사람의 평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편평화(pax universalis)다.

……(중략)……

지금 평화가 오고 있다. 혼신을 다해 이 평화 기회를 인간평화와 보편평화로 완성하자. 정녕코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말자.

출처: 『한반도평화만들기』, 2018. 5. 16. (출제진 재구성)

[나]

평화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로 국내외적으로 전쟁, 분쟁, 테러, 범죄, 폭행 등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한편, 적극적 평화는 이러한 직접적 폭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를 가리킨다. 즉, 적극적 평화는 전쟁이나 분쟁 등의 직접적 폭력은 물론 기아, 빈곤, 억압 및 차별과 같은 구조적·문화적 폭력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중략)… 직접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인 소극적 평화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다운 삶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구조적·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구조적 폭력: 사회 구조 자체가 가하는 폭력을 말함. 빈곤, 정치적 독재,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과 소외, 인종 탄압, 종교, 이념, 지역, 세대, 노사 간의 갈등을 포함함.

* 문화적 폭력: 종교·사상·언어·예술·과학 등의 문화적 영역이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말함.

출처: 이진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다]**(자료1)**

묵자(墨子)는 전쟁과 같은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서로 사랑하지 않음을 뜻하는 불상애(不相愛) 때문이며, 불상애가 일어나는 원인은 차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별애(別愛)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묵자는 별애와 반대되는 차별 없는 보편적 사랑을 의미하는 겸애(兼愛)를 하면 혼란과 갈등이 없어지고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이라 주장하였다. …(중략)… 자신을 위하듯 남을 위하고 자기 나라를 위하듯 남의 나라를 위한다면, 온 세상이 이로워져 결국 그 이익이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다. 즉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겸애가 이루어지면,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가짐을 뜻하는 교리(交利)가 따르게 된다는 겸애 교리의 사상을 주장하였다.

출처: 전종희 외, 『2026학년도 EBS 수능완성 독서·문학·화법과 작문』 (출제진 재구성)

(자료2)

에라스무스(Erasmus)는 불화와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탐욕과 야망을 지적한다. 그는 “권세와 명예와 부와 보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곳에서는 평화가 확립될 수 없다.”라고 하며 전쟁이란 전투 행위만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생활 전반에서 생기는 각종 불화를 의미한다고 본다. …(중략)… 반면 평화는 인간 상호 간의 우애로, 모든 선의 근원이다. 따라서 지도자가 이성과 신앙에 따라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한다. 또한 전쟁을 피하는 방법으로 학자, 성직자 등이 분쟁 당사자 간의 화해를 돕는 중재 제도를 제안한다.

출처: 변순용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출제진 재구성)

(자료3)

칸트(Kant)는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쟁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구 평화 조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국가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통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공화 정체인이어야 한다. 둘째,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셋째, 국가 간 평등한 관계에 기반을 둔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처럼 칸트는 직접적인 폭력과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국이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평화 연맹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 연방 체제: 국가 간 전쟁 억제를 위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법이 적용되는 체제.

* 보편적 우호의 조건: 이방인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이방인이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

출처: 변순용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출제진 재구성)

(자료4)

볼테르(Voltaire)는 『관용론』에서 자연*이 우리 인간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당신네 모두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로 태어나 이 땅 위에서 짧은 시간을 살다가 죽어 그 육체로 땅을 비옥하게 할 것이요. 당신들은 연약한 존재이므로 서로를 도우시오. 당신들은 무지하므로 서로를 가르치고 용인하시오. 만약 당신들 모두가 같은 의견이고 단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이라면 당신들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당신들 각자가 책임이 있기 때문이요. …(중략)… 당신네 인간들이 걸핏하면 벌이는 잔인한 전쟁, 과오와 우연과 불행이 펼쳐지는 영원한 무대인 그 전쟁 한복판에서도 오직 나 자연만이 당신들을, 당신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당신들 서로 간의 필요로 결합하게 할 수 있소.”

* 자연: 볼테르가 말하는 자연은 보편적인 이성을 뜻함. 보편적인 이성이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출처: 정창우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출제진 재구성)

[라]

[앞부분 줄거리] 과거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겨우 탈출하여 돌아온다. 그런데 오빠는 속속들이 망가져 있었다. 전세가 불리해져 피란을 갈 상황에 처한 가족은 예전에 살던 현저동에 숨어 지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이닥친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된다.

그 후 그들은 겪은 내기로 자주 우리 집에 드나들었다. 그중엔 보위부 군관도 있었는데 오빠에 대해 뭔가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하고 천연덕스럽게 고향 이야기나 처자식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오빠를 노려보면서 탄사람같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동무 혹시 인민군대에서 도주하지 않았소? 한단든가 동무, 혹시 국방군에서 낙오한 게 아니오? 하면 간이 콩알만큼 오그라들었다. 그러나 오빠는 그들만 나타나면 사색이 되어 떠는 증세가 그런 소리로 더해지거나 덜해지지 않았고, 인민군복을 보자마자 새로 생긴 실어증도

끝내 그대로여서 불구 노릇에 빈틈이 없었다. 문제는 우리였는데 우리도 오빠가 불구가 된 걸 연기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슬프고 원통한 일이었지만 오빠가 치유될 가망성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 보위부 군관은 남달리 집요한 데가 있었다. 위협도 하고 회유도 하고 때론 애원까지 하면서 진상을 알고 싶어 했다.

……(중략)……

“내가 동무들같이 간사한 무리한테 끝까지 속을 것 같소. 지금이라도 바른 대로 대시오. 이래도 바른 소리를 못 하겠소?”

그가 허리에 찬 권총을 빼 오빠에게 겨누며 말했다.

“안 된다, 안 돼. 이노움, 너도 사람이냐? 이노움.”

어머니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오빠는 으, 으, 으, 으, 짐승같은 소리로 신음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가 어머니를 휙 뿌리쳤다.

“이래도 이래도 바른말을 안 할 테냐? 이래도.”

총성이 울렸다. 다리였다. 오빠는 으, 으, 으, 으, 같은 소리밖에 못 냈다.

“좋다. 이래도 바른말을 안 할 테냐? 이래도.”

또 총성이 울렸다. 같은 말과 총성이 서너 번이나 되풀이됐다. 잔혹하게도 그 당장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체만 겨냥하고 쏘 댔다.

오빠는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기절해 꼬꾸라지고 어머니도 그가 뿌리쳐 나동그라진 자리에서 처절한 외마디 소리만 지르다가 까무라쳤다.

“죽기 전에 바른말 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당장 죽이진 않겠다.”

그 후 군관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만에 세상은 또 바뀌었다.

오빠의 총상은 다 치명상이 아니었는데도 며칠 만에 운명했다. 출혈이 심한 데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며칠 동안에도 오빠의 실어증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며칠 동안의 낭자한 유혈과 하늘에 맺힌 원한을 어찌 잊으랴.

출처: 최원식 외, 『고등학교 문학』

[마]

[앞부분 줄거리] ‘나’의 가족은 아빠의 직장 때문에 독일의 플라우엔(독일 중동부 작센주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살게 된다. 어느 날 아빠의 직장 동료이자 이웃인 베트남인 호 아저씨 가족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게 되고 그 이후로 두 가족은 자주 왕래하며 친분을 쌓아 간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른들의 말에 동요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드디어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라면 투이네 식구들보다 내가 더 잘 아니까, 아는 척을 한다면 엄마 아빠가 꽤나 뿌듯하게 생각해 줄 것 같았다.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 없어요.” 나는 그 말을 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엄마 아빠를 쳐다봤다. 아빠는 아무 얘기도 못 들었다는 듯이 내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고, 엄마는 조용히 하라는 투의 눈빛을 보냈다. …(중략)… 한국은 선한 나라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었고, 어른들의 대화에 자연스레 참여해서 칭찬받고 싶었다. 난 맞은편에 앉은 아빠에게 인정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넌 어른들 말하는 데 끼어들지 마. 네가 대체 뭘 안다고 떠드는 거냐!” 아빠가 한국어로 소리쳤다. 모두들 젓가락질을 멈추고 나를 봤다. 투이네 식구들 앞에서 아빠에게 그런 식으로 야단맞은 것이 부끄럽고 억울해서 귀가 먹먹해지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서 독일어로 말했다.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우린 아무에게도 잘못한 게 없다고. 우린 당하기만 했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한국 군인들이 죽었다고 했어.” 투이가 말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식탁의 분위기를 얼려 버리기에는 충분했다. “그들이 엄마 가족 모두를 다 죽었다고 했어. 할머니도, 아기였던 이모까지도 그냥 다 죽었다고 했어. 엄마 고향에는 한국군 증오비가 있대.”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힐난하는 말투였지만 나는 그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중략)……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말했다. “응웬 씨가 겪었던 일,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엄마는 호 아저씨와 응웬 아줌마에게 고개 숙였다.

“저는 모든 걸 제 눈으로 다 봤답니다. 투이 나이 때였죠.” 그렇게 말하고 호 아저씨는 붉어진 눈시울로 애써 웃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 아저씨는 거기까지 말하고 힘껏 웃어 보였다. 응웬 아줌마는 호 아저씨에게 베트남어로 속삭이듯이 이야기했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 마음을 다독이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 말의 진동이 내 마음까지 위로하는 것 같았으니까.

……(중략)……

아빠는 식탁 의자에 걸친 카디건에 팔을 넣었다. “저녁 잘 먹었습니다.” 아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희 형도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형 나이 스물이었죠. 용병일 뿐이었어요.” 아빠는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바닥을 보면서 말했다.

“그들은 아기와 노인들을 죽였어요.” 응웬 아줌마가 말했다.

“누가 베트콩*인지 누가 민간인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아빠는 여전히 응웬 아줌마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태어난 지 고작 일주일 된 아기도 베트콩으로 보였을까요. 거동도 못 하는 노인도 베트콩으로 보였을까요.”

“전쟁이었습시다.”

“전쟁요? 그건 그저 구역질 나는 학살일 뿐이었어요.” 응웬 아줌마가 말했다.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사무적인 말투였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길 바라시는 겁니까? 저도 형을 잃었다고요.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 제정신이야?” 엄마가 말했다.

응웬 아줌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조심히 닫히던 문소리. 나는 겁에 질렸지만 차마 서재로 따라 들어가지는 못했다. 엄마는 동생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는 호 아저씨에게 고개를 숙였다. “투이야, 미안하다.” 엄마는 그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기저귀 가방과 카디건을 들고 엄마를 따라 나갔다.

‘그건 그저 구역질 나는 학살일 뿐이었어요.’ 그 말을 하던 응웬 아줌마의 웃음기 없는 얼굴이 자려고 누운 내 얼굴 위로 떠올랐다. 그 말을 할 때 아줌마는 우리와 다른 곳에 있었다. 내가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장소와 시간에 아줌마는 내몰려 있었다. 그녀의 말은 아빠를 설득하려는 말도 아니었고,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말도 아니었다. 그 말은 아빠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간, 그 일을 겪은 이후로 애써 살아온 응웬 아줌마 자신에 대한 쓴웃음이었던 것 같다. 그녀는 아빠의 태도에 실망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차피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라는 마음이 그날 밤, 아줌마와 우리 사이를 안전하게 갈라놓았다. 그건 서로를 미워하고 싶지도, 서로로 인해 더는 다치고 싶지도 않은 어른들의 평범한 선택이었다.

* 베트콩(Vietcong): 베트남 공산주의자라는 뜻으로,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출처: 류수열 외, 『고등학교 문학』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는 평화를 인간 삶의 필수재로 정의하며, 다양한 층위의 평화를 소개한다. 궁극적으로 [가]는 개별 생명의 평화를 보장하는 인간평화와 모든 사람의 평화를 추구하는 보편평화를 지향할 것을 주장한다. [나]는 전쟁이나 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이 부재한 상태인 소극적 평화와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없는 상태인 적극적 평화를 구분하고, 지속적인 인류의 번영을 위해 모든 이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적극적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248자)

2번) 예시 답안

[가]와 [나]는 모든 개인이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겪지 않는 평화로운 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묵자는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며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갖는 겸애 교리를 제안한다. 에라스무스는 평화를 모든 선의 근원으로 파악하고, 평화를 해치는 전쟁을 막기 위해 학자나 성직자 등이 중심이 된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칸트는 영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자유로운 공화정 국가들 간의 연방 체제에 기초한 국제법을 통해 보편적 우호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볼테르는 보편적인 이성을 통해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용인하고 용서하는 관용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53자)

3번) 예시 답안

[라]에서 보위부 군관은 오빠를 전쟁 낙오자로 의심해 압박하다 총으로 쏜다. 이는 직접적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소극적 평화를 지향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마]에서 아빠는 투이네 가족이 베트남 전쟁에서 입은 피해와 고통을 말하지만 공감하지 못한다. 이는 소극적 평화 상태에 있지만 적극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때 두 인물은 모든 인간이 평화로워야 하는 보편평화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적극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공통의 문제점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이익을 나누어 갖는 겸애 교리와 서로를 용인하고 용서하는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더 나아가 평화를 해치는 전쟁을 막기 위해 분쟁 당사자들을 중재할 수 있는 제도와 국제법을 통해 보편적 우호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408자)

■ 채점 기준

1번) 채점 기준(15점)

-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와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5점을 부여함.
 - [가]에서 ‘필수재’ 등의 핵심 단어 또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 인간 삶에 있어서 평화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점.
 - [가]에서 ‘인간평화’, ‘보편평화’ 등의 핵심 단어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3점.
 - [가]에서 ‘인간평화’, ‘보편평화’를 지향해야 함을 설명하면 0~1점.
 - [나]에서 ‘소극적 평화’의 정의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3점.
 - [나]에서 ‘적극적 평화’의 정의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3점.
 - [나]에서 ‘적극적 평화’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3점.

2번) 채점 기준(20점)

- [가]와 [나]가 지향하는 사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다]에서 제시한 방안을 각각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가]와 [나]는 모든 개인이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겪지 않는 보편적, 적극적 평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을 파악하는 정도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부분적으로, 모든 사람의 평화인 보편적 평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파악하면 0~2점, 직접적 폭력만이 아닌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는 상태인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파악하면 0~2점을 부여함.
 - [다]에서 묵자가 말하는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며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갖는 겸애 교리’, 에라스무스가 말하는 ‘전쟁을 막기 위한 중재 제도의 필요성’, 칸트가 말하는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방 체제와 국제법을 통한 영구적 평화’, 볼테르가 말하는 ‘보편적 이성을 통해 파악한 관용의 자세’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6점을 부여함. (각각의 설명에 대해 0~4점을 부여)

3번) 채점 기준(20점)

- [가]와 [나]의 관점에서 [라]의 등장인물 ‘보위부 군관’과 [마]의 등장인물 ‘아빠’의 문제점을 설명하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하여 설명하고, [다]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라]에서 ‘보위부 군관’이 ‘오빠를 의심해 압박하며 총으로 쏘는 것’을 ‘직접적 폭력’, ‘물리적 폭력’으로 표현하고,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소극적 평화를 지향하지 않는 문제’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마]에서 ‘아빠’는 ‘투이네 가족이 베트남 전쟁에서 입은 피해와 상처’에 대해 ‘공감’, ‘이해’, ‘화해’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이로써 ‘소극적 평화 상태에 있지만 적극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문제’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라]와 [마]에서 ‘보위부 군관’과 ‘아빠’의 공통된 문제점인 ‘모든 인간이 평화로워야 한다는 보편평화’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적극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다]의 (자료1)~(자료4)를 활용해 [라]의 ‘보위부 군관’과 [마]의 ‘아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익을 나누어 갖는 겸애 교리의 자세를 갖는 것’과 ‘서로를 용인하고 용서하는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평화를 해치는 전쟁을 막기 위해 ‘분쟁 당사자들을 중재할 수 있는 제도와 국제법’을 통해 ‘보편적 우호의 관계를 지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오전 · 문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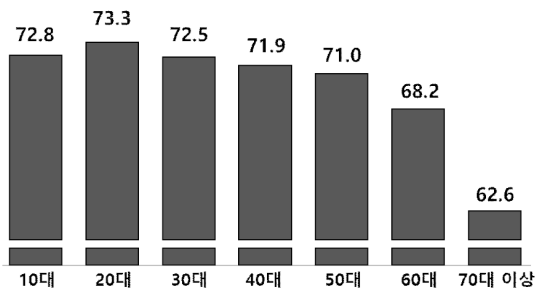
[문제 2]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문제에 답하시오. (45점)

- 1) [가]의 (자료1)~(자료4)에 나타난 사회 문제를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시오([나]의 각 세부 관점에 대응하는 [가]의 자료는 서로 달라야 함). (400자 내외) (25점)
- 2) [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에서 제시한 정년 연장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라]의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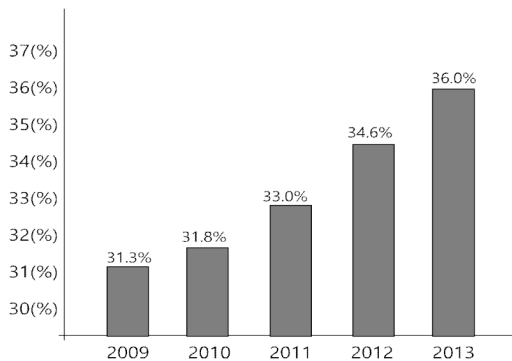
(자료1)

<우리나라 연령대별 행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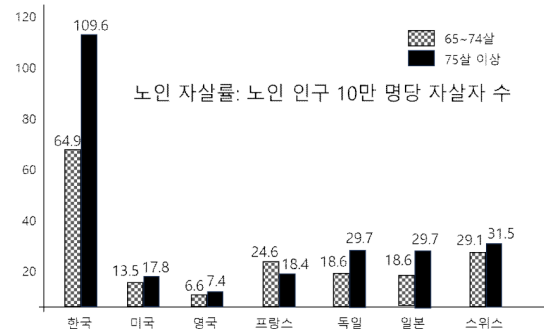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출제진 재구성)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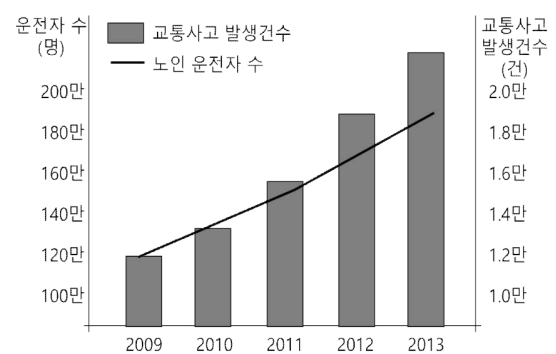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출제진 재구성)

<OECD 주요국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



출처: 『국토연구원』 (출제진 재구성)

<노인 운전자 수 및 교통사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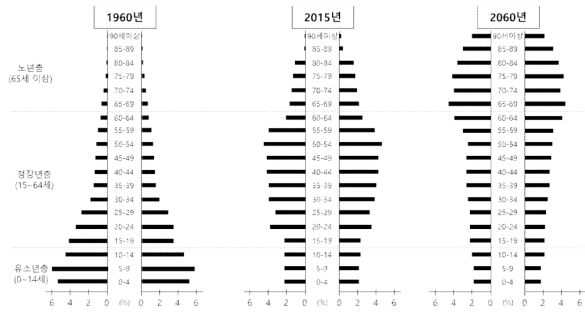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출제진 재구성)

(자료2)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출생률이 높아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컸지만, 산업화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출생률이 현저히 낮아졌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206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노년층 인구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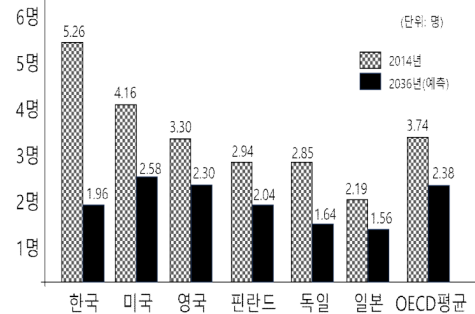
출처: 정창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그래프>



출처: 『통계청』 (출제진 재구성)

<고령자 1명당 생산 가능 인구>



출처: 『OECD』 (출제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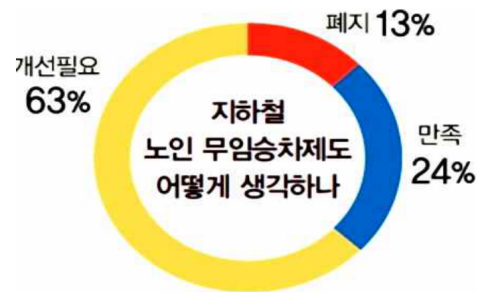
(자료3)

<서울 지하철 연도별 무임 수송 현황>



출처: 『서울교통공사』 (출제진 재구성)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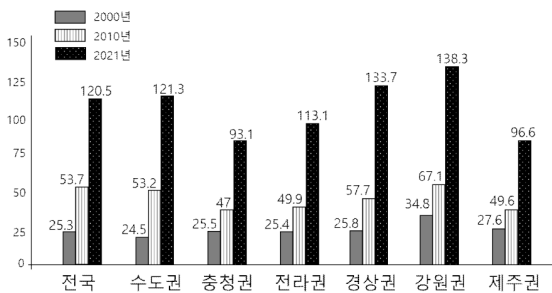
출처: 『나우앤서베이』 (출제진 재구성)

(자료4)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 ... 경기도는 노령화지수가 69.2세로 수도권 지수보다 상당부분 낮아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이 비교적 덜한 모습을 보였다. 합계 출산율에서도 경기도는 1.27명으로 전국 평균(1.24명)과 수도권 평균(1.15명)을 훨씬 웃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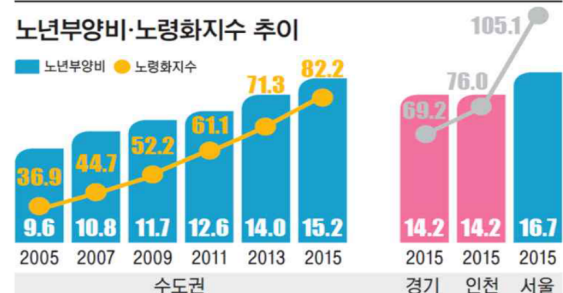
출처: 『경기일보』, 2016. 11. 10. (출제진 재구성)

<권역별 노령화지수>



출처: 『통계청』 (출제진 재구성)

<수도권 노년부양비·노령화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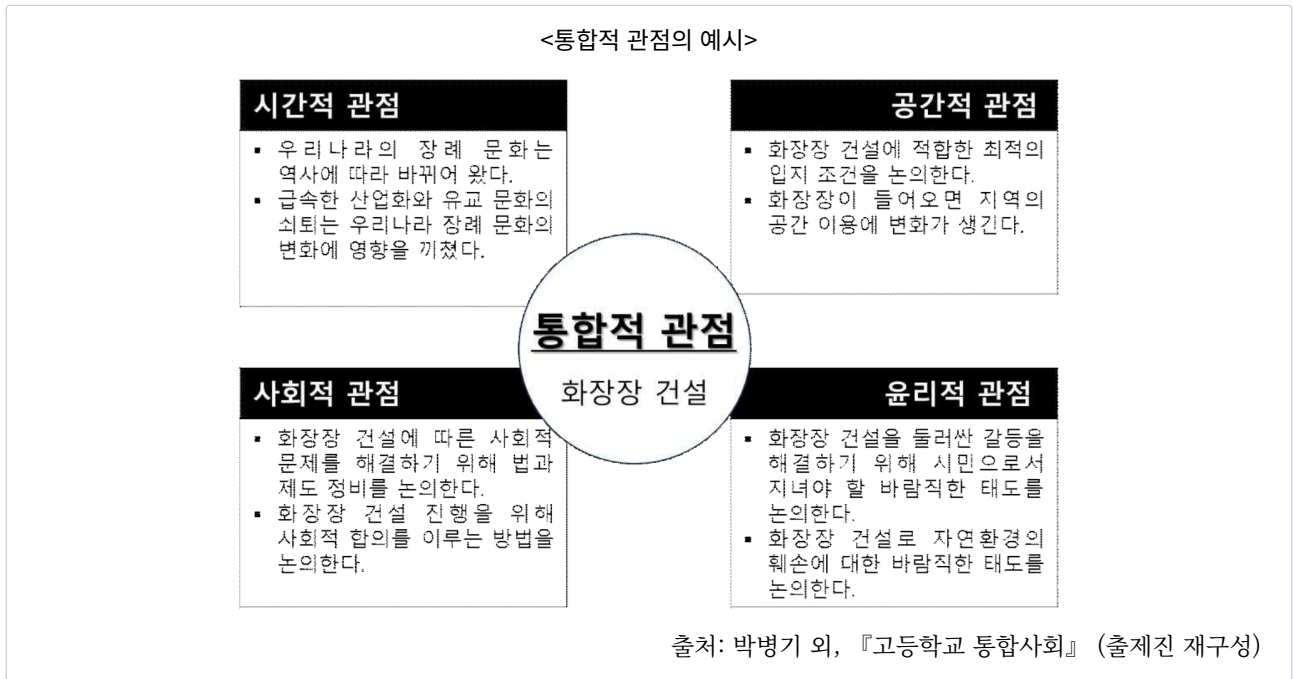


출처: 『경인지방통계청』 (출제진 재구성)

[나]

통합적 관점은 인간의 삶과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사회 현상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사회 현상에 담겨 있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각적인 해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양한 측면에서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는 시간적·공간적·사회적·윤리적 관점 등 여러 측면에서의 세부 관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이진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출제진 재구성)



[다]

노동계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정년 연장’ 카드를 전면으로 꺼내 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법정 정년 연장’ 이슈에 불을 댕겼다.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 차지) 진입을 앞두고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해 노인들의 소득 공백을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임금 체계 개편 연동 여부를 놓고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중략).....

노동계의 이런 움직임에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즉각 우려를 표했다. 경사노위는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 또 기업은 임금의 연공제적 성격이 강하고 해고 제한 등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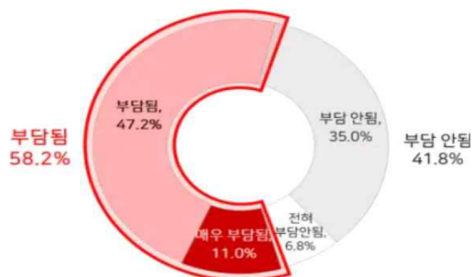
경사노위의 지적처럼 정년 연장 이슈에서 가장 큰 허들이 되는 건 세대 간 갈등이다. 2017년에도 ‘65세 정년 연장’을 추진했지만, 청년 구직난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됐다.

출처: 『중앙일보』, 2023. 8. 23.

[라]

(자료1)

<60세 초과 정년 연장 부담 여부
-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출제진 재구성)

<고령자 인력 관리 어려움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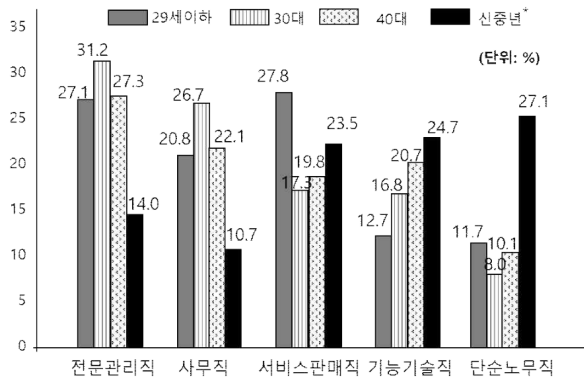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출제진 재구성)

(자료2)

한 전문가는 “고령자 고용률이 늘어난 건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생계형 일자리”라며 “경륜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질 좋은 노년 일자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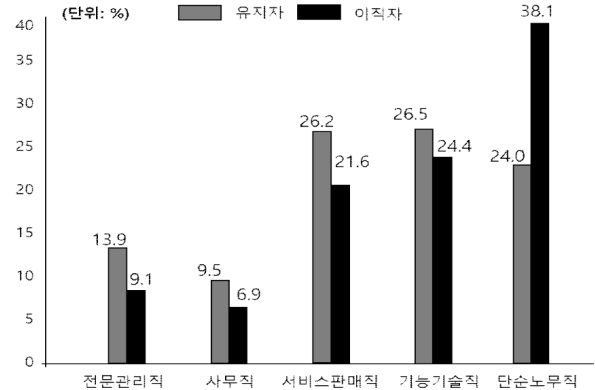
출처: 『세계일보』, 2025. 10. 8.

<연령대별 직종 분포>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출제진 재구성)

<신중년 주된 일자리* 유지자와 이직자의
직업 분포>



출처: 『통계청』 (출제진 재구성)

* 신중년: 5060세대(50~69세)를 의미함.

* 주된 일자리: 10년 이상 상용직으로 일한 일자리 혹은 생애 근속 기간이 가장 긴 일자리임.

(자료3)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고 있어, 소득 크레바스*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며,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을 나타냄.

<연령별 은퇴에 대한 대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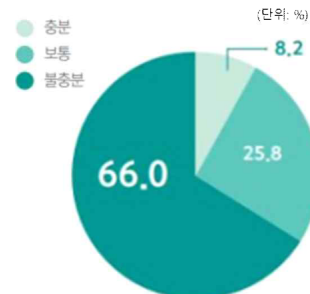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은퇴 준비에 대한 염려 정도		은퇴에 대한 대비 정도	
	걱정하지 않음	걱정함	준비하지 못함	준비함
전체	23.1	76.9	63.9	36.1
20대	36.1	63.9	71.8	28.2
30대	23.5	76.5	65.3	34.7
40대	15.4	84.6	62.6	37.4
50대	19.1	80.9	56.9	43.1

출처: 『보험연구원』 (출제진 재구성)

출처: 『보험연구원』 (출제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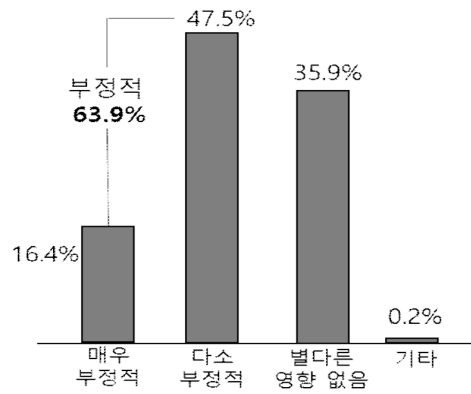
<노후 자금 준비 수준>



출처: 『하나금융그룹 100년행복연구센터』 (출제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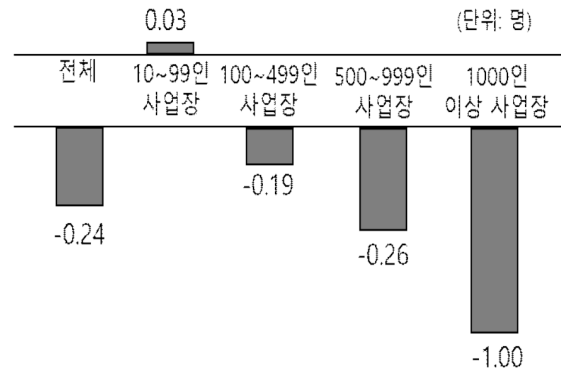
(자료4)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출제진 재구성)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령 고용 1인 증가에
따른 청년 고용 변화>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출제진 재구성)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는 고령화 관련 자료들을 통해 문제를 제시하며 [나]는 사회 현상 탐구를 위해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4가지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가]의 (자료1)은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행복지수가 낮고, 자살률이 높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높음을 사회적 관점에서 문제로 제시하고, (자료2)는 2060년에 노년층 인구 비중이 가장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고령자 1명당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낮아짐을 시간적 관점에서 문제로 제시한다. (자료3)은 우리나라 지하철의 무임승차 제도 개선에 대한 보편적 규범 의식의 변화를 윤리적 관점에서 문제로 제시하고, (자료4)는 권역별 노령화에 있어 지방이 높고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낮은 현상을 통해 공간적 관점에서 문제 현상을 제시한다. (397자)

2번) 예시 답안

정년 연장 제도 도입은 [라]의 (자료2)와 (자료3)을 근거로 찬성할 수 있다. (자료2)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한 고령자는 단순노무직, 기능기술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질 좋은 일자리가 필요해서 찬성의 근거가 된다. (자료3)에 따르면 노령연금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소득 크레바스 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찬성의 근거가 된다. 반면 정년 연장 제도 도입은 (자료1)과 (자료4)를 근거로 반대할 수 있다. (자료1)에 따르면 기업은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해 58.2%가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주된 이유로 높은 인건비를 들어 반대의 근거가 된다. (자료4)에 따르면 고령 고용 1인이 증가하면 청년 고용은 0.2명이 줄어들어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의 근거가 된다. (391자)

■ 채점 기준

1)번 채점 기준(25점)

- (자료1)에서 우리나라 고령인구가 행복지수가 70대에 급격히 낮아지고, OECD 국가대비 65세 이상 자살률이 높으며,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높아진다는 점을 사회적 제도와 법의 미비를 근거로 통합적 관점의 세부 관점인 사회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2)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에 있어 1960년대 유소년층이 가장 많다가 2015년 청장년층이 가장 많고 2060년에 노년층 인구 비중이 가장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령자 1명당 생산 가능 인구는 2014년 대비 2036년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화로 시간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3)에서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 증가에 따른 적자로 인한 무임승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적 규범의식 변화에 따른 윤리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4)에서 권역별 노령화에 있어 강원, 경상, 전라권 지방이 수도권에 비하여 높으며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서울, 인천에 비해 가장 낮은 현상을 통해 공간적 관점에서 문제 현상을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종합적으로 [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고령화 문제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통합적 관점에 근거하여 하나의 자료에 하나의 세부 관점이 중복되지 않게 배치하여 설명하며, 논리적이고도 충실하게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세부 기준	점수
각 자료에 대응하는 세부 관점이 네 개 다 맞고 통합적 관점에서 논리적이고도 충실하게 설명한 경우	25점
각 자료에 대응하는 세부 관점이 네 개 다 맞게 활용한 경우	20~24점
각 자료에 대응하는 세부 관점이 세 개 맞게 활용한 경우	15~19점
각 자료에 대응하는 세부 관점이 두 개 맞게 활용한 경우	10~14점
각 자료에 대응하는 세부 관점이 한 개 맞게 활용한 경우	5~9점
각 자료에 대응하는 세부 관점이 전부 맞지 않고 충실하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0~4점

2)번 채점 기준(20점)

- (자료1)에서 60세 초과 정년 연장 부담 여부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의 결과 58.2%의 기업들이 부담을 가진다고 답한 것과 높은 인건비로 인한 고령자 인력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정년 연장 제도에 대한 반대의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 (자료2)에서 연령대별 직종 분포에 있어 고령자는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고, 일자리 유지자 대비 일자리 이직자의 경우 단순노무직이 크게 높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즉, 고령자 고용률과 별개로 고령자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바탕으로 정년 연장 제도에 대한 찬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 (자료3)에서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에 따른 소득 공백기간(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설명, 은퇴에 대비한 정도 및 노후 자금 준비 수준이 낮음을 바탕으로 정년 연장 제도에 대한 찬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 (자료4)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64%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고령 고용 1인 증가에 따라 청년 고용이 0.2명 줄어든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이는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바탕으로 반대의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 종합적으로 [라]의 자료들을 정년 연장 제도의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하게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자료1), (자료4)를 반대의 근거로, (자료2), (자료3)을 찬성의 근거로 설명하며 논리적이고도 충실하게 의견을 전개하고 자료를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세부 기준	점수
각 자료에 대응하는 찬성, 반대의 근거가 네 개 다 맞고 논리적이고도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설명한 경우	20점
각 자료에 대응하는 찬성, 반대의 근거가 네 개 다 맞게 활용한 경우	16~19점
각 자료에 대응하는 찬성, 반대의 근거가 세 개 맞게 활용한 경우	12~15점
각 자료에 대응하는 찬성, 반대의 근거가 두 개 맞게 활용한 경우	8~11점
각 자료에 대응하는 찬성, 반대의 근거가 한 개 맞게 활용한 경우	4~7점
각 자료에 대응하는 찬성, 반대의 근거가 전부 맞지 않고 충실하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0~3점

오후 · 문제 1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문제에 답하십시오. (55점)

- 1)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십시오. (250자 내외) (15점)
- 2) [가]와 [나]에서 진단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의 (자료1)~(자료4)에서 제시한 방안을 각각 설명하십시오. (350자 내외) (20점)
- 3) [라]와 [마]의 등장인물 ‘교수’와 ‘남자’는 각각 감독관과 회사 상사의 요구대로 움직인다. [가]와 [나]의 관점에서 ‘교수’와 ‘남자’가 놓인 문제 상황의 원인을 설명하고, [다]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빨리빨리’나 ‘좀 더 빨리’가 일상어가 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미친 가속의 체제다. 속도를 빠름의 정도로 간주하기에, 빠름이 미덕이 되고 빠름이 능력이 된 사회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그 속도에 홀려, 경쟁적인 가속의 흐름에 맡겨 자신의 속도를 잃고 달려가고 있다.

……(중략)……

이 미친 속도의 강박증을 말하면서 자본을 말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누락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속도의 미덕을 강박으로 바꾸고 속도에 사활을 거는 것을 외적인 강제로 만드는 것은 바로 자본이기 때문이다. …(중략)… 시간이 돈이기에 같은 시간이면 최대한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 또한 그대로 돈이 된다. 생산도, 유통도, 소비도 모두 빠를수록 돈이 된다. 속도가 돈인 것이다.

……(중략)……

한 철학자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속도의 파시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빠른 속도 그 자체는 미덕도 악덕도 아니지만, 그것이 누구나 따라가야 할 강제와 강박이 되어 한결같이 빠름을 추구하는 사회는 파시즘적 사회라고 해야 하니까. …(중략)… 세상의 실에 매달려 그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로 춤추는 인형에게 그 춤은 자신의 춤이 아닐 것이다. 자기 속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춤이 된다. 자신의 삶이 된다.

출처: 고흥진 외, 『고등학교 독서』

[나]

[1936년에 제작된] <모던 타임즈>는 찰리 채플린이 만든 마지막 무성영화다. 톱니바퀴에 낀 채 웃고 있는 채플린의 모습은 산업화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찰리가 일하는 작업장에는 컨베이어벨트가 설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노동자는 각자 맡은 일을 반복한다.

……(중략)……

반복되는 나사 돌리기는 기계 문명에 의해 창조적 노동 행위에서 소외된 상황을 암시한다. 인간에게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밖에도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인간은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욕구를 가진 존재이며,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종종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이 발휘되곤 한다. 노동은 이처럼 환경을 바꾸는 작업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노동의 대가는 금전적 차원에서만 거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노동 과정 자체에서 느끼는 보람, 노동 후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만족감 등도 노동을 통한 성취에 포함된다. 그런데 분업화된 노동 환경에서 개인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박탈된다. 주어진 일을 반복하는 기계로 전락한 인간에게서 노동 주체로서의 능동적 자발성은 찾아볼 수 없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산업화는 인류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했지만,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인간의 노동을 기계에 종속시키고, 선량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모던 타임즈>는 산업 사회 인간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출처: 『한겨레』, 2007. 10. 21. (출제진 재구성)

[다]**(자료1)**

칸트(Kant)는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 하라.”라는 정언 명령을 제시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존중을 담고 있는 말이다. 인격은 수단적 가치를 지닌 사물과 달리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는 모든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출처: 류지한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출제진 재구성)

(자료2)

인간이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음으로써 생겨나는 느낌을 스피노자(Spinoza)는 정념*이라 부른다. …(중략)… 인간은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정념에 사로잡히기 쉽다. …(중략)…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보존하고 실현하려면 궁극적으로 다른 존재의 영향으로 인한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인간이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중략)… 인간이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념에 대해 객관적인 인식을 갖는 것, 즉 정념의 참된 원인을 아는 것이다.

* 정념: 마음의 움직임과 생각 또는 강하게 집착하여 떨어지지 않는 사랑과 미움의 감정 등을 의미함.

출처: 박찬구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출제진 재구성)

(자료3)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근본적으로 모든 경제 활동을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근거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각종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제한을 두기 시작하였다. 그중 하나가 국가가 사적 영역에 직접 개입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사회법이다.

노동법은 사회법의 한 종류로서 근로관계를 규율한다. 국가는 노동법을 근거로 근로관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금이나 근로 조건은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당한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 임금과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보장하도록 강제한다.

출처: 김왕근 외, 『고등학교 정치와 법』 (출제진 재구성)

(자료4)

사르트르(Sartre)는 인간이 신에 의해 본질이나 목적이 계획되거나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라고 보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컵과 같은 사물은 ‘물을 담는다.’라는 목적이나 본질이 먼저 존재하고 실제 컵이 만들어지지만, 인간은 미리 정해진 목적이나 본질 없이 먼저 실존한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음을 강조하며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출처: 정창우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출제진 재구성)

[라]

[앞부분 줄거리] 해설에서 교수의 장녀가 등장하여 관객들에게 가족에 대해 소개한다. 아버지의 직업이 교수라는 점, 아버지의 저서가 열두 권 있으나 그 책은 모두 번역 작품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장녀는 아버지의 명성과 돈벌이 때문에 자신과 남동생은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밝힌다.

줄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 도어가 무겁게 열리며 교수 등장. 아래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지 칸투성이다.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다닌다.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중략)……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찢었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형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살살이 툰다.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툰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중략)… 교수가 소파 앞에 굴러 있는 신문지를 집어 본다.

교수: (신문을 혼자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엔 두 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구.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착취사에서 다시 나왔어. 이 씨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 맞았군.

처가 신문지를 한 장 다시 접는다. 낱짜를 보더니

처: 당신두 참, 그건 옛날 신문이에요. 오늘 것은 여기 있는데.

교수: (보던 신문 낱짜를 읽고) 오라, 삼 년 전 신문을 읽고 있었군. 오늘 신문 이리 주시오. (오늘 신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엔 두 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구.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악마사에서 나왔어. 이 씨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 맞았군.

처: 참, 세상도 무척 변했군요. 삼 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당신 피곤하시죠?

……(중략)……

교수 전면에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며 천사가 역시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발레를 추면서 들어온다. 교수는 천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교수: (한참 있다) 옳아,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

천사: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교수: (일어서며) 분명 그래. 아직 잊지를 않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의 옛 모습이야.

천사: 쥐꼬리만 한 기억력이 아직 남아 있군요.

교수: 언제 어떻게 돼서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불타는 듯한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이 납니다. 밤을 새워 가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떠들던 때……. 아, 꿈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천사: 당신이 나를 떠났지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나한테 되돌아오기는 너무 늦었어요.

교수: 내 꿈을 도로 찾아 주십시오. 생각할 힘을 주시오. 요즈음은 통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 사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고가 난걸요.

교수: 이 함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천사가 서서히 사라진다.) 가지 마시오! 내 희망, 내 정열은 어떻게 되는 거요. 꿈을 주십시오! 내 꿈! 내 꿈!

꿈을 잃은 교수는 맥없이 전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 어둠 속에서 창을 여는 소리가 나며, 감독관이 얼굴을 나타낸다.

감독관: (회초리를 흔들며) 원고! 원고는 언제 쓰는 거야?

이 소리에 교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비참한 표정으로 번역을 계속한다. 이러한 사이에 무대 전체가 암흑화된다.

……(중략)……

교수 퇴장, 장남 등장, 장남과 장녀는 소파에 앉아 고약한 세리*처럼 처의 귀가를 기다린다. 이윽고 처가 철문을 열고 들어온다. 피곤에 못 이겨 허둥지둥하면서도 돈 보따리는 꼭 끼고 있다. 현기증이 심한 듯 소파 앞에 무릎을 떨어뜨리며 주저앉는다. 장녀와 장남이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손을 번쩍 내민다. 처는 보따리를 헤치고 돈을 나누어 준다. 돈을 받아 두 자식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간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처가 마루에서 일어나 소파에 주저앉아 눈을 감는다.

* 세리: 세금을 받는 관리.

출처: 류수열 외, 『고등학교 문학』

[마]

[앞부분 줄거리] 새해 첫 출근 날,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 ‘남자’는 밤새 내린 눈이 허리를 넘어설 만큼 쌓여 출근할 수 없게 된다. 초조함 속에서 하루를 더 보낸 남자는 결국 눈을 파헤치며 회사로 향하지만 금세 지쳐 버린다. 상사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던 남자는 우수 사원인 유 대리 역시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 대리에게 전화해 보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빨리 안 오고 뭐 해. 과장의 문자가 도착했다. 어느새 두 시였다. 남자는 삼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눈을 치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쳤다. 눈 속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드러누워서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중략)……

남자의 삼 끝에 폐지 묶음이 걸렸다. 얼어붙은 종이 뭉치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삼으로 떠내는데 그 사이에 들어 있던 중국집 스티커가 남자의 구두 위에 툭 떨어졌다. 손바닥만 한 광고지에는 짜장면과 짬뽕, 볶음밥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하얀 눈 위에서 그 까맣고 빨간 색상은 너무나 선명했다. 남자는 자신이 아침, 점심도 거른 채 삼질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중략)……

회사까지의 거리는 이제 삼 분의 일쯤 남아 있었다. 남자는 과장의 문자와 부장의 전화를 한 번씩 받지 않았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아내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남자는 그저 파고 걸었다. 설 때는 허리를 펴고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거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중략)……

한참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삼 끝에 딱딱한 게 또 걸렸다. 시간은 촉박하고 마음은 급한데 발로 눌러도 삼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남자는 일 미터쯤 떨어진 곳에 다시 삼을 쫓았다. 한 삼 떠내고 나자 또 삼이 들어가지 않았다. 생활 정보지 함이나 자전거가 쓰러진 게 아니라 공룡이라도 묻혀 있는 것 같았다. 하는 수 없이 방향을 옆으로 틀어서 봤다. …(중략)… 그것은 눈 속에 파묻힌 누군가의 휴대 전화였고 공교롭게도 뺏뺏하게 언 양복바지 안에 들어 있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삼과 손으로 눈을 파냈다. 판박이 스티커를 천천히 벗겨 낼 때처럼 눈 속에서 검은색 구두와 발, 모직으로 된 양복바지가 차례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중략)… 혹시라도 맥박이 뛰는지 확인하려던 남자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 속에서 화석이 된 사람은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던 유 대리였다. 이 봐. 남자는 유 대리의 몸을 흔들었다. 턱에서 땀이 툭 떨어졌다. 일어나. 휴대 전화에서 다시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이봐!” 유 대리를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 대리의 전화를 주워 귀에 댔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기, 눈 속에, 유 대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남자의 입 안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해가 기울고 주위는 어느새 어둑어둑해졌다. 이대로 한 시간 정도만 파고 가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는 회사 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파고 온 길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나아가기에도 다시 돌아가기에도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게다가 남자는 너무 지쳐 있었다. 그는 유 대리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숨을 골랐다. 졸음이 밀려왔지만 졸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다. 눈 더미는 딱딱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뭉개지고 있었다.

출처: 방민호 외, 『고등학교 문학』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는 시간이 돈으로 환산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속도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빠름이 미덕으로 강제되는 파시즘적 사회 속에서 개인은 삶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속도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산업화와 기계 문명의 발달이 인간 노동을 기계에 종속시키고, 인간이 노동 행위에서 창조성과 주체성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한다. (249자)

2번) 예시 답안

[가]와 [나]는 주체성 상실로 인한 인간 소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1)의 칸트는 모든 인간을 단지 수단이 아니라 언제나 목적으로 대해야 함을 주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다. (자료2)의 스피노자는 다른 존재의 영향으로 인한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념의 참된 원인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료3)은 인간 소외 등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료4)의 사르트르는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352자)

3번) 예시 답안

[라]에서 교수는 가족이 요구하는 돈을 벌기 위해 강박적으로 번역에 몰두한 채 자신의 꿈을 잃고 살아간다. [마]에서 남자는 상사의 압박에 못 이겨 샴으로 눈길을 파헤치며 회사로 향하던 중, 우수 사원 유 대리가 동사한 것을 발견하고 그 곁에서 점점 정신을 잃어 간다. 교수와 남자는 모두 자본의 속도와 논리를 좇아 주어진 일을 기계적으로 반복한다. 이로 인해 창조성과 주체성을 상실하고 꿈을 잃거나 삶이 파괴되는 문제적 상황에 놓인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영향으로 인한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과 결단을 하는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 인간을 단지 수단이 아니라 언제나 목적으로 대해야 하며, 더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가 개인을 부당하게 규율하지 않도록 사회법적 규제를 두어야 한다. (403자)

■ 채점 기준

1번) 채점 기준(15점)

-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와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5점을 부여함.
- [가]에서 ‘자본’, ‘시간’, ‘돈’의 관계와 빠른 속도의 미덕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점.
- [가]에서 ‘강제’, ‘강박’, ‘파시즘’ 등의 핵심 단어를 사용해 개인에게 빠름의 미덕이 강요되고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4점.
- [가]에서 개인의 속도와 삶의 주체성 회복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점.
- [나]에서 산업화, 또는 기계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노동을 기계에 종속시켰다는 바를 ‘소외’, 주체성 상실 또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4점.
- [나]에서 노동 분업으로 인간이 창조적 노동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3점.

2번) 채점 기준(20점)

- [가]와 [나]에서 진단한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다]에서 제시한 방안을 각각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가]와 [나]가 주체성 상실로 인한 인간 소외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 [다]의 (자료1)에서 칸트의 ‘인간성 존중’, (자료2)에서 스피노자의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자료3)에서 ‘사회법, 혹은 노동법을 통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 문제 해결’, (자료4)에서 사르트르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을 통한 참된 실존 회복’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6점을 부여함. (각각의 설명에 대해 0~4점을 부여)

3번) 채점 기준(20점)

- [가]와 [나]의 관점에서 [라]의 등장인물 ‘교수’와 [마]의 등장인물 ‘남자’가 놓인 문제 상황의 원인을 설명하고, [다]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라]에서 ‘교수’는 가족이 요구하는 돈을 벌기 위해 ‘강박적으로 번역에 몰두하는 것’과 이로 인해 ‘자신의 꿈을 잃고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마]에서 ‘남자’가 ‘상사의 압박에 못 이겨 샴으로 눈을 파헤치며 출근하는 것’과 ‘유 대리가 동사한 것을 발견하고 그 곁에서 점점 정신을 잃어가는 것’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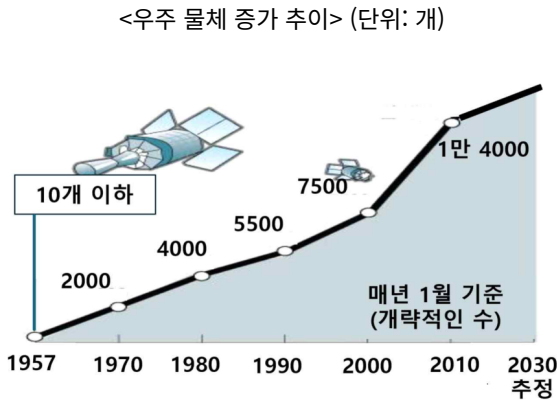
- [가]와 [나]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의 원인을 ‘자본의 속도와 논리’를 좇아 ‘기계적으로 일을 반복한다는 것’과 이로 인해 ‘창조성과 주체성을 상실’하고 ‘꿈을 잃거나 삶이 파괴되어 간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다]를 활용해 [라]의 ‘교수’와 [마]의 ‘남자’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에서 ‘외부의 영향으로 인한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과 결단을 하는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과 ‘인간을 단지 수단이 아니라 언제나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 더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가 개인을 부당하게 규율하지 않도록 사회법적 규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오후 · 문제 2

[문제 2]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문제에 답하십시오. (4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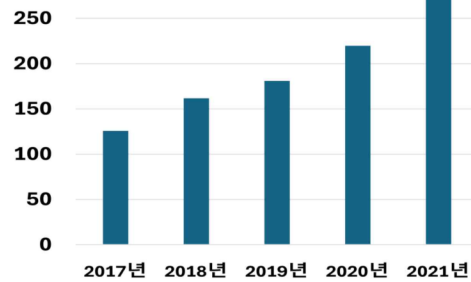
- 1) [가]와 [나]에 나타난 문제의 원인을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설명하십시오. (400자 내외) (25점)
- 2) [다]에서 제시한 두 가지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라]에서 찾아 서술하고, [마]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그 사례를 설명하십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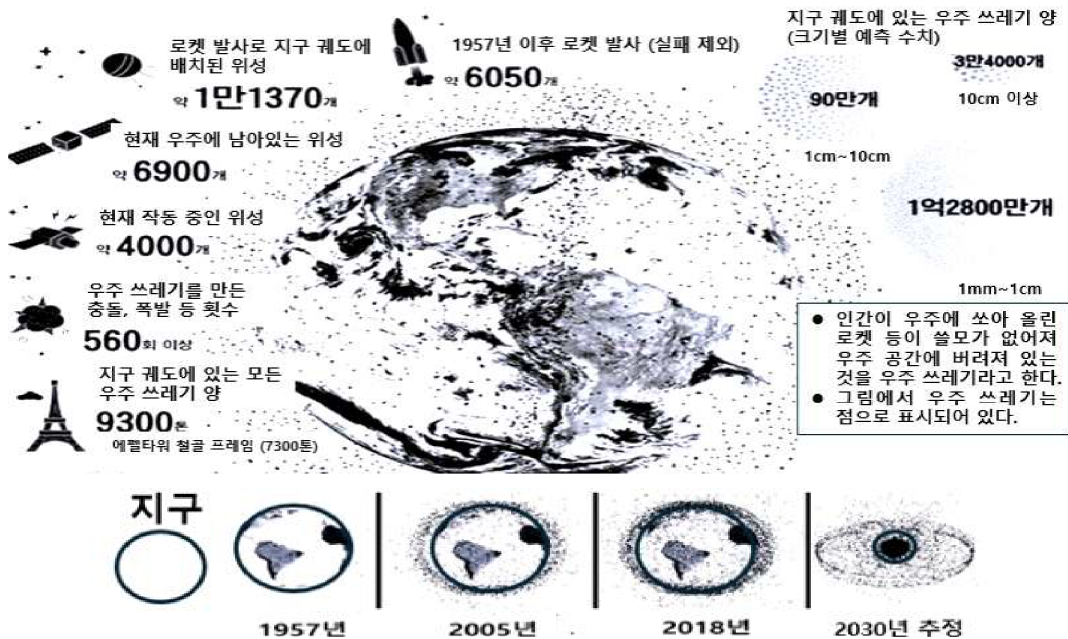
출처: 『서울신문』, 2018. 9. 13.
(출제진 재구성)

<우주 쓰레기와 인공위성 충돌 고위험 사례>
(단위: 건)



출처: 『세계일보』, 2022. 5. 16.
(출제진 재구성)

<우주 쓰레기 현황>



출처: 『프리미엄 조선』, 2021. 5. 26. (출제진 재구성)

[나]

기초분야 연구의 지식이나 성과는 이를 정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일정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한 번 만들어지면 누구나 대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속성이 있다.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초연구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출제진 재구성)

<과학계에서 요구하는 기초분야 연구과제 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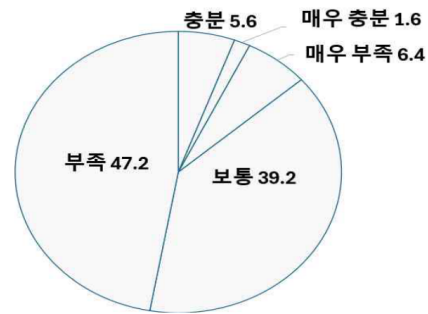


출처: 『한국경제』, 2025. 7. 15.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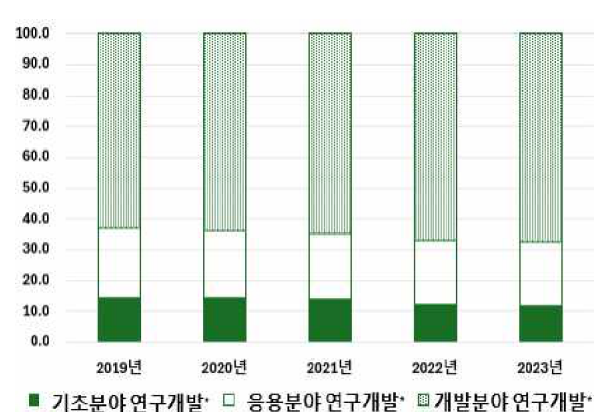


<기초분야 연구 지원 체감 설문조사>
(단위: %)



출처: 『서울경제』, 2019. 5. 12.

<우리나라 분야별 연구개발비>
(단위: %)



- * GDP: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합계.
- * 기초분야 연구개발: 특정의 사업적 목적 없이 과학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활동.
- * 응용분야 연구개발: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실제 응용을 직접 노리는 연구 활동.
- * 개발분야 연구개발: 새로운 재료, 장치, 제품 등의 도입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한 연구 활동.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출제진 재구성)

전문가들은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다. 민간에서는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개발분야 연구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중략)… 기초분야 연구는 기초과학을 발전시키고 연구의 다양성을 보장해 창의적 연구자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더 나아가 미래 핵심기술 확보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출처: 『매일경제』, 2021. 1. 25. (출제진 재구성)

[다]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인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출처: 이진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출제진 재구성)

모든 재화는 경합성과 배제성의 정도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른 재화의 구분>

구분	경합성 있음	경합성 없음
배제성 있음	사적재	클럽재
배제성 없음	공유 자원	공공재

* 경합성: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제한을 받는 속성.

* 배제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제한할 수 있는 속성.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 (출제진 재구성)

공공재는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도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고,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처럼 공공재는 사람들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같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므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적게 공급되는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출처: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출제진 재구성)

전체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과 바다 같은 공유 자원은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있다. 배제성이 없으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나 공유 자원을 소비할 수 있는 반면, 경합성이 있으므로 누군가가 공유 자원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는 감소한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공유 자원은 쉽게 남용되어 자원이 고갈되고 필요한 양보다 과다하게 소비하여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이를 ‘공유지의 비극’ 현상이라고 한다.

출처: 김진영 외, 『고등학교 경제』 (출제진 재구성)

[라]

재화의 특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 상황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공동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재산권의 보장 등이 필요하다.

……(중략)……

시장 경제에서 정부는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가계나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등 제한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때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출처: 정창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출제진 재구성)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사회 구성원인 개인이 정의로운 사회와 좋은 삶을 위해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연대 의식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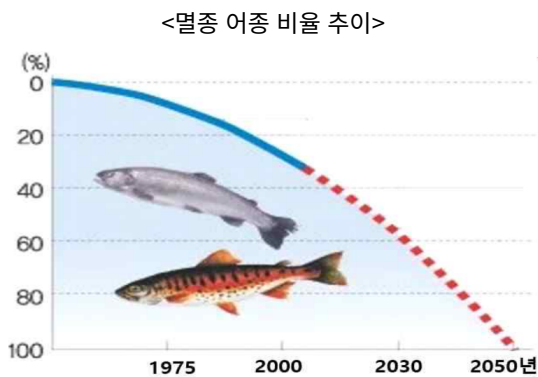
출처: 박병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출제진 재구성)

개인이나 기업은 사유 재산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사유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최선의 경제적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유 재산권의 보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더불어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출처: 김진영 외, 『고등학교 경제』 (출제진 재구성)

[마]

(자료1)



출처: 『세계일보』, 2006. 11. 3.
(출제진 재구성)

<국내 남획으로 줄어든 대표 어종들>



출처: 『동아사이언스』, 2021. 6. 5.
(출제진 재구성)

정부는 현재 자율 참여 방식인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의무화하고 정부 직권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어종별로 상한을 정해놓고 어획량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앞으로 오징어·멸치·고등어 등도 관리 대상종으로 정해 정부가 통제할 방침이다.

<정부의 총허용어획량 제도 실시에 따른 달성 목표>

총허용어획량 관리 대상종 어획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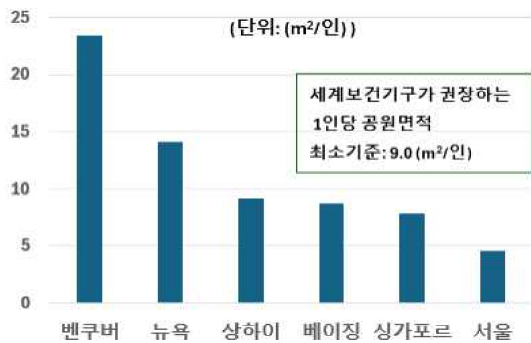
연근해 어획량 (단위: 만톤)



출처: 『글로벌이코노믹』, 2019. 2. 13. (출제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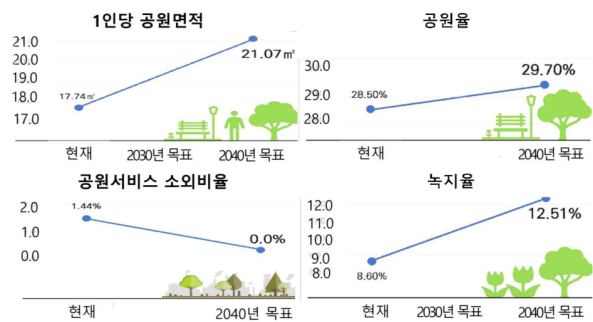
(자료2)

<도시별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비교>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출제진 재구성)

<서울특별시 공원녹지 조성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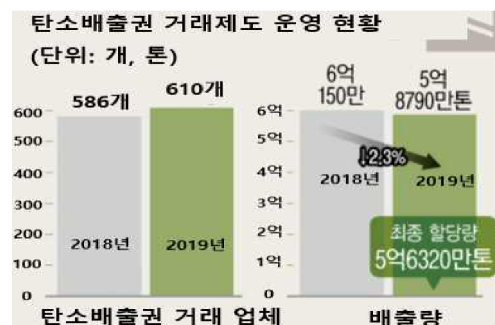
출처: 서울특별시 『204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출제진 재구성)

(자료3)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공유 자원적 성격을 갖는 자연 자원을 사유 재산화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제적 접근 방법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환경에 대한 재산권의 부재 혹은 불완전성에 있다는 인식하에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설정하고 경제주체 간에 배분하여 자발적으로 거래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산림경영에의 시사점』
(출제진 재구성)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 현황과 거래시장 실적>



출처: 『이투데이』, 2021. 9. 11. (출제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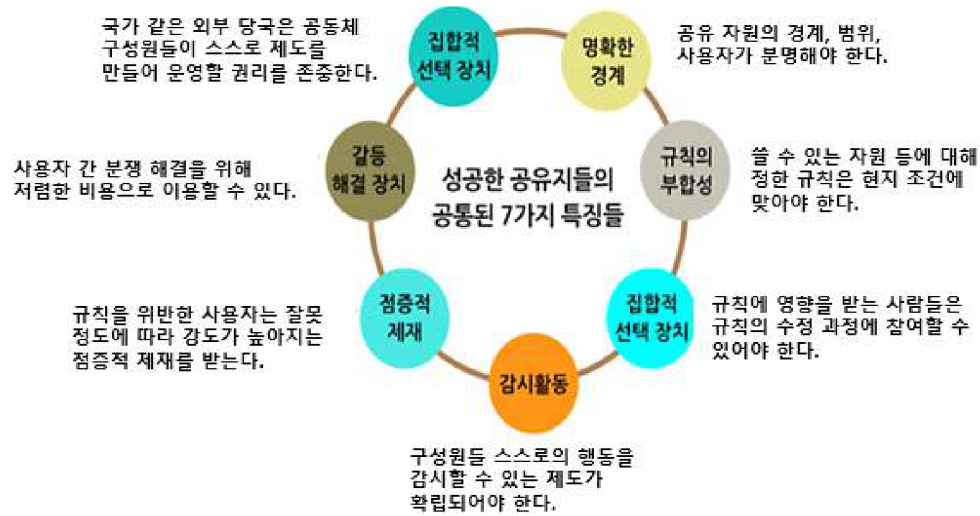
(자료4)

인구 600명의 스위스 퇴르벨은 팔백 년 넘게 초지를 마을 공동체가 공동으로 관리해 온 사례이다. 1517년 작성된 퇴르벨 마을 조례에는 “여름철 초지에 내보낼 수 있는 소의 수는 겨울철에 자신이 사육할 수 있는 소의 수만큼만 허용된다.”고 적혀있다. 규약은 마을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이 용량의 규제를 통해 경합의 위험을 제거하고 의사결정 제도를 통해 자치권이 보장되는 구조이다. 이 자치제

도는 1,500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체는 이를 수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다. 자치제도의 변화는 외부의 간섭이 아닌 공동체의 필요와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출처: 『한국조경신문』, 2021. 7. 15.

<성공한 공유지 사례의 7가지 특성>



출처: 『반디뉴스』, 2024. 4. 17.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의 우주 쓰레기 증가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에 해당한다. 우주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 자원이기 때문에 배제성이 없어서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 가능 영역은 한정되어 있어서 발사체가 늘어나면 이용자 간의 경합성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발사 경쟁이 심화되고 우주 쓰레기가 증가하여 충돌 위험이 커지는 등 공유 자원 남용이라는 시장 실패로 이어진다. [나]의 기초연구 지원 부족 현상은 무임승차 문제로 인한 공공재의 과소 공급 사례이다. 기초분야 연구의 성과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과 모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비경합성 때문에 그 성과를 독점하기 어려워서 타분야 연구보다 지원에 소극적이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기초분야 연구가 적게 이루어지는 비효율이 나타난다. (412자)

2번) 예시 답안

[다]에서는 공공재의 과소 공급과 공유 자원의 남용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설명한다. [라]에 따르면 이러한 재화의 특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의 해결 방안으로 정부의 개입, 공동체의 노력, 사유 재산권의 확립을 제시할 수 있다. [마]의 자료들은 이를 뒷받침한다. (자료1)의 총허용어획량제도는 어획량을 제한하여 공유 자원의 고갈을 막으려는 정부 개입 사례이다. (자료2)의 공원 조성 사업은 공공재인 공원녹지의 부족을 해결하려는 정부 개입 사례이다. (자료3)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환경에 재산권을 부여해 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한 공유 자원의 사유 재산권 확립 사례이다. (자료4)는 주민 공동체가 스스로 이용 규칙을 만들고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 초지를 관리하여 공유 자원의 남용을 해결한 사례이다. (395자)

■ 채점 기준

1)번 채점 기준(25점)

- [가]를 우주 물체의 증가로 우주 공간에 버려지는 쓰레기와 인공위성의 충돌 고위험이 증가하는 문제로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점을 부여함.
- [나]의 연구개발비와 기초분야에 대한 연구과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기초분야 연구개발 지원은 타분야 연구개발 지원보다 현저히 부족한 상황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3점을 부여함.
- [다]의 ‘공유 자원의 남용으로 인한 시장 실패’ 개념을 적용하여 [가]의 우주 쓰레기 증가로 인한 위험 문제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세부 기준	점수
‘비배제성’, ‘경합성’, ‘공유지의 비극(공유 자원의 남용)’이라는 핵심 개념을 모두 활용한 경우	8~10점
핵심 개념 중 두 개를 활용한 경우 또는 ‘공유지의 비극(공유 자원의 남용)’만 활용한 경우	5~7점
핵심 개념 중 한 개를 활용한 경우(‘공유지의 비극(공유 자원의 남용)’만 활용한 경우 제외)	3~4점
핵심 개념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	0~2점

- [다]의 ‘공공재 과소 공급으로 인한 시장 실패’ 개념을 적용하여 [나]의 기초분야 연구지원 부족 문제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세부 기준	점수
‘비배제성’, ‘비경합성’, ‘공공재 무임승차로 인한 과소 공급’이라는 핵심 개념을 모두 활용한 경우	8~10점
핵심 개념 중 두 개를 활용한 경우 또는 ‘공공재 무임승차로 인한 과소 공급’만 활용한 경우	5~7점
핵심 개념 중 한 개를 활용한 경우(‘공공재 무임승차로 인한 과소 공급’만 활용한 경우 제외)	3~4점
핵심 개념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	0~2점

2)번 문항(20점)

- [라]에서 공공재와 공유재의 특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①정부의 개입, ②공동체의 노력, ③사유 재산권의 확립으로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6점을 부여함.

세부 기준	점수
①~③을 모두 적절히 설명한 경우	5~6점
①~③ 중 두 개를 적절히 설명한 경우	3~4점
①~③ 중 한 개를 적절히 설명한 경우	1~2점
설명하지 못한 경우	0점

- (자료1)은 공유 자원인 어종의 고갈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 사례이다. 공유 자원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라]의 정부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3점을 부여함.
- (자료2)는 공공재인 공원의 과소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확충한 사례이다. 공공재로 인한 시장 실패를 [라]의 정부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 (자료3)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환경에 재산권을 부여해 공유 자원인 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한 사례이다. 공유 자원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라]의 재산권 보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4점을 부여함.
- (자료4)는 주민 공동체가 합의를 통해 공유 자원인 초지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사례이다. 공유 자원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라]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3점을 부여함.

2025학년도 인문계열

오전 · 문제 1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문제에 답하십시오. (30점)

- 1)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십시오. (250자 내외) (10점)
- 2) 1)에서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서술자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250자 내외) (20점)

[가]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 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뽕죽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다. ... (중략)... 그래서 탱자 가시에 찢리곤 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한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나 손이 퉁퉁 부었던 적이 있다. 별것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중략).....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 있지 않게 되었다. 그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과 영어 단어장이, 그다음에는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가, 때로는 술잔이 들려 있곤 했다.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더 많았다.

생활의 짐은 한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찢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한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찢러 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중략).....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다리 한쪽이 좀 짧았다고 한다.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불우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내 다리 한쪽이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있어서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간 짧은 다리 한쪽이었던 것이다.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 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곤 한다.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 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 웃자라: 쓸데없이 보통 이상으로 많이 자라 연약하게 되어.

출처: 이삼형 외, 『고등학교 국어』

[나]

조선 시대의 최고 과학자 장영실은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위인으로 손꼽힌다. 동래현 관노*에서 종3품까지 오른 장영실이지만 이후의 행적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장영실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의외로 처벌에 관한 것이다. 새로 만든 세종의 가마가 시험 운행 중 부서지자 장영실이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세종실록』에는 장영실이 곤장 80대를 맞고 파면됐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의 행적은 찾아볼 수 없다.

장영실이 파면된 해에서 약 600년이 지나 4차 산업 혁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는 실패를 허(許)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는 국가의 발전과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혁

신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한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 연구 개발 성공률은 96퍼센트라고 한다. 얼핏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매우 좋지 않은 신호이다. 정작 사업화 성공률은 20퍼센트에 그쳐 70퍼센트에 근접한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연구 가치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고민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안전한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대목이다.

……(중략)……

만약 장영실에게 실패를 허락했다면 어땠을까. 부서진 가마가 자동차로 태어나지는 않았을지, 조선형 소총이 개발되어 임진왜란의 고초*가 없지는 않았을지, 더 나아가 이 땅 위에 혁신의 꽃이 무수히 피어나지는 않았을지……。 지나간 역사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4차 산업 혁명을 앞에 둔 지금 도전하고 또 도전해 보자. 실수해도 괜찮다. 실패의 쓴맛은 성공의 확률을 그만큼 더 높여 주는 법이다.

* 관노(官奴): 관노비. 관가에 속하여 있던 노비.

* 파면(罷免)되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되다.

* 허(許)하다: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허락하다.

* 고초(苦楚): 고난.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출처: 박영민 외,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다]

훈이가 고등학교 이 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 이과로 나누게 되었고,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문과를 택한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나는 우선 그런 문제를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 안 한 게 서운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오빠가 전문학교에서 문과였다는 것만으로 덮어놓고 문과를 싫어했다. 그래도 나는 훈이 편이 되어 고등학교 문과가 반드시 장래 문학 지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 어머니는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해서 돈 한 톨 벌어들인 일이 없는 주제에 까닭 없이 죽어야 하는 일엔 끼여들고 말았다는 사실이 문과 출신이라는 것과 반드시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론 어머니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일을 바로잡아 보리라 마음먹었다.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애걸하다시피 해서 훈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훈이를 설득하려 들었다. 나는 막연히 훈이를 두려워하면서 중언부언 내 말을 했고, 훈이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젊은이다운 대답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훈아, 너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인문계보다는 이공계가 더 적성에 맞는대. 좀 좋아. 공대 같은 데 가면 요새 공장이 많이 생겨서 공대 출신이 제일 잘 팔린다더라. 넌 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 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살림 재미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리고 살아야 돼. 문과 가서 뭐 하겠니? 그야 상대나 법대로도 풀릴 수 있지만 그게 그리 쉬우냐, 까딱하단 문학이나 철학이나 하기가 꼭 알맞지. 아서라 아서. 사람이 어떡하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왜 사냐, 뭐 이런 게지. 돈을 어떡하면 많이 벌 수 있냐 하는 생각보다 돈은 왜 버냐, 뭐 이런 생각 말이야. 그리고 오늘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일은 갈비찜을 먹을 궁리를 하는 게 순선데, 내 이웃은 우거짓국도 못 먹었는데 나만 고깃국을 먹은 게 아닌가 하고 이미 배 속에 든 고깃국조차 의심하는 바보짓 말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빚나가기 시작하면 영 사람 버리고 마는 거야. 어떡허든 너는 이 사회에 순응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돼야지 괜히 사회의 병폐*란 병폐는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건 없잖아.”

“고모,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훈이가 내 말의 중턱을 자르며 푸듯이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훈이가 아버지에게 대해 뭘 물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렇기도 했지만, 내가 오빠에 대해 오랫동안 몰래 추측하고 있던 걸 훈이한테 느닷없이 들키고 만 것 같아 더 그랬다.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다시 아까 한 소리를 간곡하게 되풀이했다. 내 말에 감동했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훈이는 내가 옮겨 준 대로 이과에 잘 다녔다. 그러나 형편없이 성적은 떨어졌다. 때마침 공대가 불을 이룰 때라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몰려 훈이는 대학 입시에 낙방했고, 재수는 막무가내 싫다고 해서 삼류 대학 공대 토목과에 들어갔다.

……(중략)……

어머니는 나만 보면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 이 년이나 놀리고 나서 취직이라고 시켜 준답시고 어떤 삼수 갑산으로 귀양을 보냈기에 이렇게 한 번 다니러 오지도 못하느냐고 하기도 했고, 집세만 받아먹어도 굶지는 않을 텐데 그게 어떤 귀한 자식이라고 객지로 노동별이를 보냈느냐고도 했다.

……(중략)……

훈이가 젓먹이일 적, 그때 그 지랄 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 온 땅이 불모화해 사람들의 삶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던져지는 걸 본 나이기에, 지레 겁을 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 가며 키웠다.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절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훈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방도를 전연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

* 병폐(病弊):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조직이나 사물의 내부에 생긴 폐해.

출처: 류수열 외, 『고등학교 국어』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는 어린 시절 탕자 가시에 찔린 경험을 통해 날카로운 가시가 오히려 성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고통을 피하고 외면하기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국가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실패를 허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안전한 목표만이 아니라 시행착오와 위험을 무릅쓴 도전을 존중해야 혁신의 꽃이 무수히 피어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2)번 예시 답안

[다]에서 서술자는 문과 출신이었던 오빠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불행한 삶을 마쳤다고 생각하고, 조카 ‘훈이’를 이과에 보내 안정된 삶을 살게 하고자 한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훈이’를 키워온 방식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이는 [가]에서처럼 서술자가 오빠의 불행한 죽음이라는 ‘가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조카의 진로를 강요해서이기도 하고, [나]에서처럼 서술자가 시행착오나 실패를 존중하기보다 안정된 삶을 추구해서이기도 하다.

■ 채점 기준

1)번 문항

◆ 채점 기준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와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에서 날카로운 가시가 오히려 성숙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고통을 통해 인생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고 요약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나]에서 국가 발전과 성장을 위해 실패를 허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시행착오와 위험을 무릅쓴 도전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약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채점 기준

[가]와 [나]의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서술자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다]에서 서술자는 문과 출신이었던 오빠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불행한 삶을 마쳤다고 생각하고, 조카 ‘훈이’를 이과에 보내 안정된 삶을 살게 하고자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훈이’를 키워온 방식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임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를 활용해 서술자가 오빠의 불행한 죽음이라는 ‘가시’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조카 ‘훈이’에게 이과를 강요했으나 서술자의 기대와 달랐기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나]를 활용해 서술자가 시행착오나 실패 없는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며 조카를 양육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기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오전 · 문제 2

[문제 2]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를 각각 평가하고, [라]를 활용하여 [다]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쿵트, 뒤르켐, 파슨스를 포함한 기능주의자들은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에 필요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기능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하여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기능론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나 규범을 구성원 간 합의의 산물로 보고, 사회 질서 유지와 사회 안정을 위해 이러한 규범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많은 기능주의자들은 계급, 인종, 젠더에 기반을 둔 사회 불평등이나 사회적 분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안정과 사회적 질서에만 주목했다. 불평등은 사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사회적 희소 자원을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필요하며 당연하다고 본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의 능력이나 직업의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사회적 희소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결과이며, 이는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 사회적 희소 자원의 분배 기준은 대부분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므로 공정한 것으로 본다. 기능주의는 사회 질서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사회 변동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고, 기존 질서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집단의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출처: 구정화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출제진 재구성)

[나]

갈등론은 한 사회에서 희소 가치를 많이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갈등론은 한 사회의 재화, 권력과 같은 희소 가치가 배분되는 과정에서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난다고 본다. 사회의 안정과 유지는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규범이나 사회 제도 등을 통해 피지배 집단을 억압한 결과라는 것이다. 갈등론에서는 지배 집단의 억압에 대하여 피지배 집단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사회 발전과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갈등론에서는 사회 운동이 사회 집단 간의 지배와 억압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사회 불평등이 보편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회적 희소 자원이 직업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불공정하게 분배되며, 분배 기준은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 아닌 지배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갈등론은 사회 구성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 불평등 현상으로 인한 집단 간 대립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출처: 신형민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출제진 재구성)

[다]

입시경쟁 과열은 사교육 부담 및 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사회 역동성 저하,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 학생의 정서불안과 낮은 교육성과 등 우리나라 구조적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육 시스템을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의 입시경쟁은 사교육비 증가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교육 기회 불평등’을 초래했다. 특히 2023년 고교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읍면지역보다 1.8배 높았고, 서울 내 고소득층(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은 저소득층(월 소득 200만 원 미만)보다 2.3배 더 많이 지출했다. 이러한 사교육 불평등은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른 상위권대 진학률의 큰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2010년 소득 상위 20%의 상위권대 진학률은 하위 20%보다 5.4배 높았다. 2010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잠재력 이외의 ‘부모의 경제력 효과’의 결과로 추정되었다. 2018년 서울과 비서

울 간 서울대 진학을 격차 중 92%는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24. 8. 27.

[라]

복지와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관에서는 복지증진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국가의 주요 역할이라고 본다. 개인은 생명·자유·재산권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권리, 행복을 추구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롤스(J. Rawls)가 주장하는 정의로운 국가는 평등한 자유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기회 균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중시하는 국가이다. 그는 선천적 능력, 가정 환경 등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이 사회적 성취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는 그러한 우연적 요인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황인표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본적으로 교육 영역에서 평등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교육을 받을 권리’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출처: 『헌법재판소 판례집』 (출제진 재구성)

■ 예시 답안

[가]의 기능론은 사회를 유기체로 보며, 사회 질서 유지와 안정을 위해 구성원 간 합의의 산물인 가치나 규범 준수를 강조하지만, 기득권 유지 집단의 논리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나]의 갈등론은 사회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보며, 대립과 갈등을 통한 사회 발전과 변화를 강조하지만,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다]는 교육 기회 불평등을 설명한다. 사교육 불평등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지역에 따른 사회 불평등 현상이다. 사교육 불평등에 대하여 [가]는 희소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결과이며, 분배 기준은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므로 공정하다고 평가하지만, [나]는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배된 것으로 지배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므로 불공정하다고 평가한다.

[라]에서 복지와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관과 롤스의 정의관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며, 기회균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중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이 있으므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채점 기준

◆ 채점 기준

제2문 첫 번째 질문의 배점은 20점이며, 이는 다시 ‘기능론과 갈등론의 핵심 내용과 사회 불평등을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10점), ‘사교육 불평등 현상에 대하여 각 관점을 비교하여 이에 대한 평가’(10점)로 나누어 채점 기준을 설명함

- [가]의 기능론, [나]의 갈등론의 핵심 내용과 각 이론이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것을 설명한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의 기능론의 내용과 사회 불평등 현상을 ‘유기체’, ‘구성원 간 합의의 산물’, ‘사회 질서 유지와 안정’, ‘사회적 희소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결과’, ‘기득권의 집단 논리’ 등을 사용하여 요약 설명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모든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님)
 - [나]의 갈등론의 내용과 사회 불평등 현상을 ‘지배와 피지배’, ‘집단 간 대립과 갈등’,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불공정하게 분배’, ‘지배 집단의 가치 반영’, ‘사회 통합 저해’ 등을 사용하여 요약 설명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모든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님)
- 사회 불평등 현상 중 교육 기회 불평등에 대한 요약 설명과 [가]와 [나]의 관점에 따라 사회 불평등을 각각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다]의 내용에 대하여 ‘사교육비 증가’, ‘교육 기회 불평등’, ‘부모의 경제력 효과의 결과’, ‘거주지역 효과’ 등을 사용하여 요약 설명하고, [가]의 기능론의 관점, [나]의 갈등론의 관점을 비교하여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다]의 내용에 대하여 요약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와 [나]의 관점에 따라 사회 불평등을 논리적으로 잘 평가하였다면 10점을 부과할 수 있음
 -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하여 [가]의 기능론은 공정한 것으로 평가하며, [나]의 갈등론은 불공정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결론뿐만 아니라, [가]와 [나]의 이론이 공정 또는 불공정하다는 평가를 한 것에 대한 근거, 즉 ‘개인의 능력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 결과’,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므로’(기능론의 경우),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배’, ‘지배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므로’(갈등론의 경우) 등으로 근거까지 모두 들어 잘 설명하였다면 10점을 부과할 수 있음

◆ 채점 기준

제2문 두 번째 질문의 배점은 10점이다. 국가관과 롤스의 정의관에 따른 설명(5점), 헌법재판소에 따른 설명(5점)으로 나누어 채점기준을 설명함

- [라]의 복지와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관과 롤스의 정의관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복지와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관 또는 롤스의 국가관 중 하나의 견해만을 설명한 경우 2~3점을 부여함
 - ‘인간의 존엄성’과 ‘기회균등이나 약자 배려’에 대한 근거 설명 없이 국가의 노력만을 설명한 경우 2~3점을 부여함
- [라]의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평등원칙, (자유권적 및 사회권적) 기본권, 국가의 과제를 넘어서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할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오전 · 문제 3

[문제 3] [가]를 활용하여 [나]와 [다]를 설명하고, [라]의 관점에서 [마]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의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인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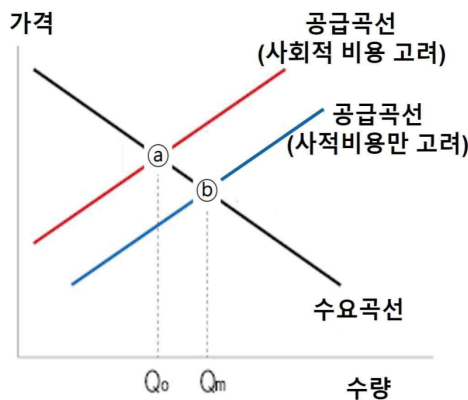
출처: 이진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외부 경제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이 때문에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 또는 소비된다. 반대로 외부 불경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많이 공급 또는 소비된다.

출처: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출제진 재구성)

공급 과정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은 사회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환경오염이라는 비용을 유발하고 있지만, 환경은 공급자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공급자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 …(중략)… 공급 과정에서 투입된 요소 등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사적비용이다. 그러나 공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유발되는 손해는 공급자 입장에서 비용은 아니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은 ‘공급자의 사적비용 + 외부 불경제에 따른 비용(외부비용)’이 된다.

<외부 불경제로 인한 시장 실패>



- ① =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균형점
- ② = 사적비용만 고려한 균형점
- Q_o =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공급량
- Q_m = 사적비용만 고려한 공급량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 (출제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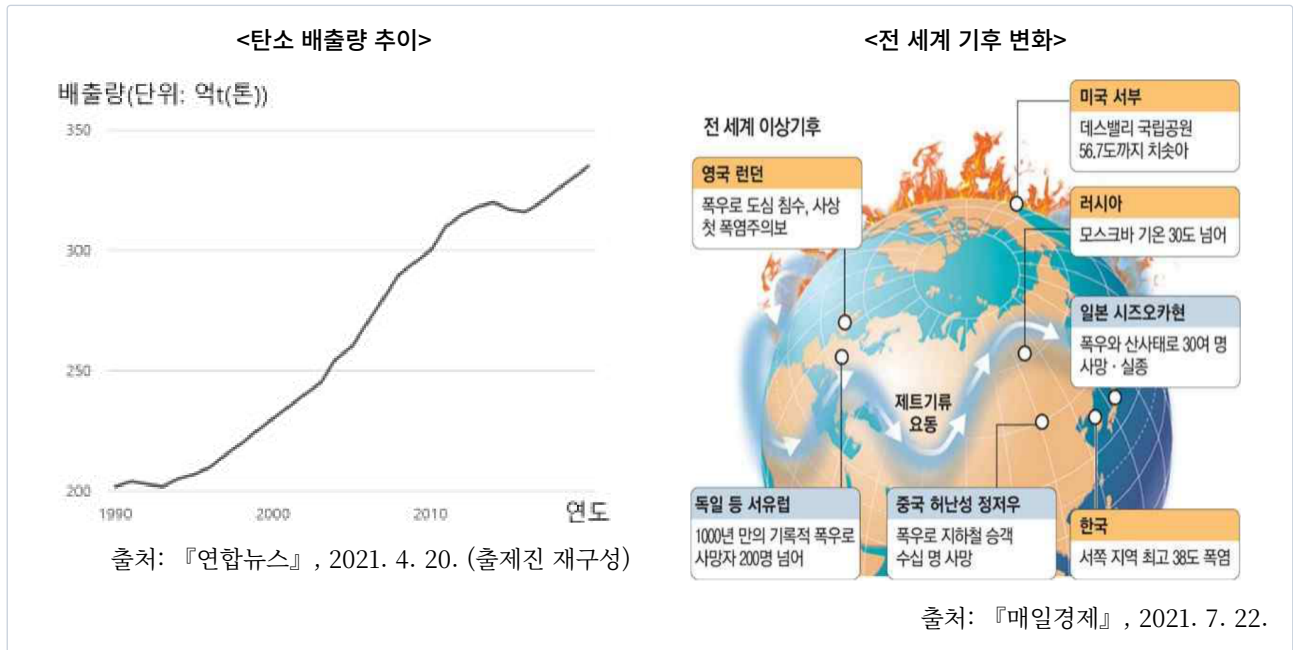
정부는 시장 개입을 통해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의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출처: 유종열 외, 『고등학교 경제』 (출제진 재구성)

[나]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 변화는 주로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2005년 발효)에 따르면, 배출량 감축 대상인 주요 온실가스는 탄소를 포함해 총 6가지 물질이다. …(중략)… 2021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현황을 살펴보면, 탄소가 약 7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 『한국일보』, 2023. 8. 8. (출제진 재구성)



[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탄소는 환경을 오염시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그 피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제품의 생산원가에 반영돼 있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대신 탄소세를 부과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이에 여러 국가가 탄소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고려 중에 있다.

출처: 『동아일보』, 2018. 8. 15. (출제진 재구성)

<탄소세 도입 국가>

국가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아일랜드	일본	프랑스	포르투갈
도입 연도	1990	1991	1992	2008	2010	2012	2014	2015

출처: 『경향신문』, 2020. 11. 11.

[라]

지속 가능한 발전은 ‘현재 세대의 자원 이용과 개발 수준이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평등과 환경 보전, 경제 성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①전 세계 국가들이 협력해야 하고, ②정부, ③기업, ④개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출처: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출제진 재구성)

[마]

(자료 1)

교토의정서는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한 첫 국제협약이지만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규정하고, 목표도 ‘하향식’으로 할당해 국가 간 갈등이 컸다. …(중략)…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3위) 등 개발도상국에는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탄소 배출 감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중략)…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출처: 『뉴시스』, 2015. 12. 13. (출제진 재구성)

<탄소누출 현상>



탄소누출은 기업이 생산 시설을 탄소 배출량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옮기면서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줄지 않는 문제를 말한다.

출처: 『포스코 뉴스룸』, 2024. 3. 21. (출제진 재구성)

(자료 2)

정부는 시장에서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며,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간접 자본(SOC)*을 제공하기도 한다.

* 사회 간접 자본: 항만, 도로, 철도, 전기, 가스 등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공공재.

출처: 이진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출제진 재구성)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는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이 적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출처: 신정엽 외, 『고등학교 세계지리』

<주요 에너지별 발전량 비중 전망>



출처: 『헤럴드경제』, 2023. 1. 12. (출제진 재구성)

<에너지별 탄소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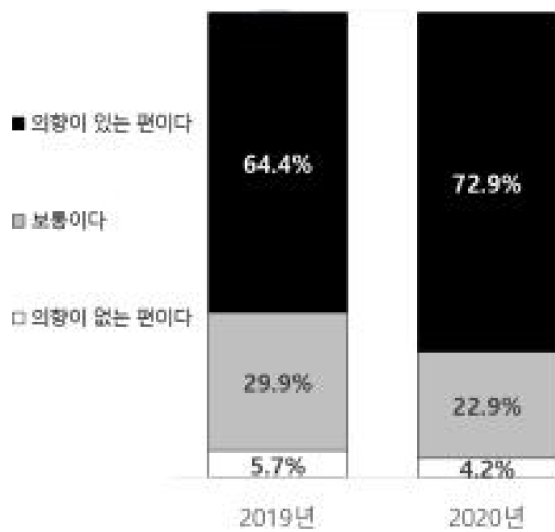
출처: 『서울경제』, 2017. 8. 16. (출제진 재구성)

(자료 3)

기업은 생산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어야 이윤을 얻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좋은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노력으로 인해 기술 개발, 경제 성장 등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처: 김진영 외, 『고등학교 경제』 (출제진 재구성)

<윤리적 소비* 의향 조사>



* 윤리적 소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지구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

출처: 『매드타임스』, 2020. 7. 29.

(자료 4)

<일상생활 속 개인 탄소발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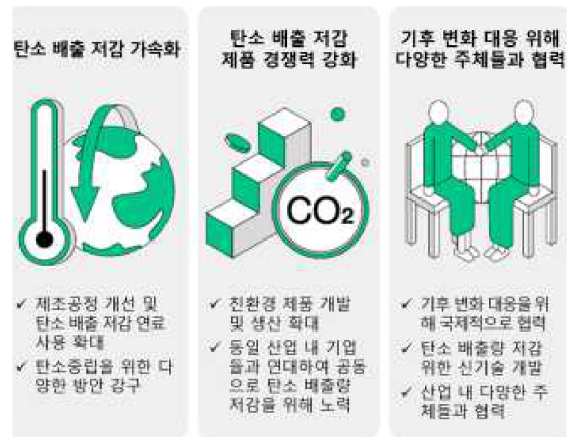
탄소발자국 계산 결과		
자가용(1500cc 중형)으로 휘발유 40만 원어치 소비	450.87kg	(163그루)
5만 원어치 전기 사용	33.26kg	(122그루)
1만 원어치 가스 사용	5.08kg	(22그루)
기차로 100km 이동	2.26kg	(1그루)
버스 20회 탑승	1.15kg	(0그루)
지하철 20회 탑승	0.04kg	(0그루)

* 한 달간 사용 기준으로 가정해 계산했을 때의 수치임.
 * 끝없는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 심어야 할 소나무.

* 탄소발자국: 인간의 모든 활동과 상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총량 의미.

출처: 『동아일보』, 2015. 12. 11. (출제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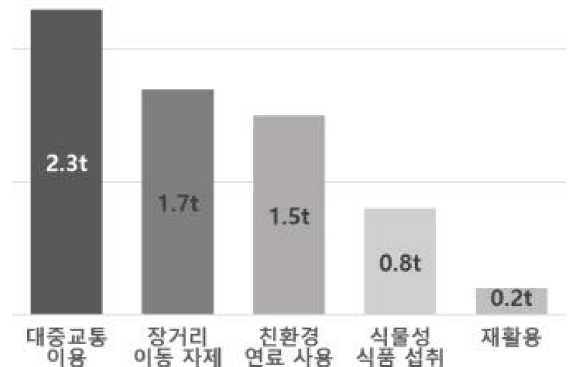
<A 기업의 지속 가능 전략>



출처: 『A 기업 홈페이지』 (출제진 재구성)

<생활 습관의 변화에 따른 탄소발자국 변화>

세로축: 연간 탄소 배출 저감량 (단위: t(톤))



출처: 『BBC 뉴스코리아』, 2023. 5. 20. (출제진 재구성)

■ 예시 답안

[나]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이며 [가]의 외부 불경제로 인한 시장 실패 상황으로서 공급자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이 공급하면서 발생한다. [다]는 정부가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 또는 고려하는 상황으로 [가]의 외부 불경제로 인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전 세계의 협력과 정부, 기업, 개인의 참여가 필요함을 설명한다. [라]의 관점에 따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자료 1)과 같이 함께 협력하여 일부 국가만의 탄소 배출 감축으로 인한 탄소누출을 억제해야 한다. 정부는 (자료 2)와 같이 공익의 차원에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적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기업은 (자료 3)과 같이 소비자 다수가 환경 보존을 위한 윤리적 소비 의향이 있으므로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의 개발,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등 지속 가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개인은 (자료 4)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시키는 다양한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 채점 기준

◆ 채점 기준

- [가]를 통해 [나]의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 문제를 외부 불경제의 시장 실패 상황으로 바라보고, 사회적 비용(사적비용 + 외부비용)을 고려한 적정 수준보다 많이 공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를 통해 [다]의 탄소세 도입은 외부 불경제로 인한 시장 실패를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채점 기준

- [라]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의 협력과 정부, 기업, 개인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1)을 통해 전 세계가 함께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협력하여 탄소누출을 막아야 함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2)를 통해 정부는 공익 차원에서 탄소 배출량 저감이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3)을 통해 소비자의 다수가 환경 보존을 위한 윤리적 소비 의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 가능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4)를 통해 개인이 발생시키는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것은 일상생활 속의 습관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 가능함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오후 · 문제 1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문제에 답하시오. (30점)

- 1)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250자 내외) (10점)
 2) 1)에서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이 대장’이 지닌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250자 내외) (20점)

[가]

과학사를 들춰 보면 기존의 학문 체계에 도전했다가 곤욕*을 치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자주 만날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이다. 천동설을 지지하던 당시의 권력층은 그들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갈릴레이를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자로 욕하고 목숨까지 위협했다.

……(중략)……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새로운 가설이 무시되고 과학의 발전이 늦춰질 뻔했던 사례가 또 있다. 1854년 8월 런던의 브로드가에 퍼진 콜레라*는 불과 열흘 만에 주민 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 갔다. 당시 과학자들은 별다른 증거 없이 오염된 공기로 콜레라가 전염된다고 주장했다. 보통 악취가 나는 하수구나 늪지대 근방에서 전염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공기로 병이 전염된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의사 존 스노만은 예외였다. 그는 대담하게도 공기가 아니라 물이 콜레라균의 매개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려고 했다. 그는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콜레라의 전염 양상을 관찰하고 발병자와 사망자의 집 위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최초 발병자의 집 지하에 있는 정화조와 브로드가 지하에 있는 상수도의 거리가 가까운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그는 최초 발병자의 장에서 나온 세균이 정화조와 토양층을 통하여 브로드가의 상수도에 유입되었고, 그 상수도에서 물을 길어 먹었던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무모한 듯 보였던 존 스노의 연구는 콜레라의 전염 경로를 설명하여 콜레라 예방에 공헌했을 뿐 아니라 현대 의학의 연구 방법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다.

* 곤욕(困辱):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

* 콜레라(cholera): 콜레라균이 일으키는 소화 계통의 전염병. 심한 구토와 설사에 따른 증상, 근육의 경련 따위를 일으키며 사망률이 높다.

출처: 박안수 외, 『고등학교 국어』

[나]

드레퓔스 사건이 시작된 지 삼 년이 흘렀습니다. 양심적인 많은 사람이 그동안 깊은 고통과 불안을 느꼈고, 마침내 드레퓔스의 무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쉐레르 케스트네르* 씨의 의심과 확신의 연대기를 작성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가 이 사건을 탐구하는 동안 참모 본부에서 일어난 주요 돌발 사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만은 밝혀 두겠습니다. 상데르 대령이 사망한 후 피카르 중령이 정보 국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직무 수행을 하던 피카르 중령은 어느 날 외국 대사관 요원이 에스테라지 소령에게 보낸 전보 엽서 한 통을 수중에 넣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그의 최소한의 의무였습니다. 그가 상관들의 의도를 넘어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는 즉각 자신의 의심을 직속 상관인 공스 장군에게 보고했고, 그다음 부아데프르 장군, 그다음 메르시에 장군에 이어 국방부 장관이 된 비요 장군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수없이 오르내린 그 유명한 피카르 문서는 실은 비요 문서였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 문서는 장관을 위해 부하가 작성한 문서이며, 지금도 틀림없이 국방부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조사는 1896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조사 결과 공스 장군이 에스테라지의 유죄를 확신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부아데프르 장군과 비요 장군이 명세서의 작성자가 에스테라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피카르 중령의 조사는 이런 사실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테라지의 유죄 선고는 필연적으로 드레퓔스 사건의 재심을 초래할 것이고, 그것은 참모 본부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막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략)……

비요 장군, 부아데프르 장군, 공스 장군이 드레퓔스가 무죄라는 사실을 안 지 일 년이 지났건만, 그들은 여전히 그 무시무시한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합니다!

……(중략)……

저는 1881년 7월 29일 제정된 언론법 30조 및 31조에 따라 명예 훼손 행위로 기소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행위는 순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제가 고발한 사람들에 관한 한, 저는 그들을 알지도 못하며, 단 한 번 만난 적도 없으며, 그들에게 원한이나 증오를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회악의 표본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행위는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 수단일 뿐입니다.

* 쉐레르 케스트네르: 드레퓔스 사건 이후 지인에게서 드레퓔스의 억울한 사정을 전해 듣고 그의 재심 운동을 벌인 인물로, 당시 국회 상원 부의장이었다.

출처: 박영목 외, 『고등학교 독서』

[다]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 둘 곳을 몰라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밤은 짧는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오.”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 선생(臥龍先生) 같은 이를 천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제이(第二)의 계책을 듣고자 하옵니다.”

했다.

“나는 원래 ‘제이’라는 것을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을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明)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宗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보내고, 훈척(勳戚)* 권귀(權貴)*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무릇, 천하에 대의(大義)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唐)나라, 원(元)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해지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賓貢科)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江南)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國恥)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諸侯)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 되면 대국(大國)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백구지국(伯舅之國)*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禮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나?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데가 있느냐? 의복은 흰 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喪人)*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 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하는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중략)…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하였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나?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 삼고초려(三顧草廬):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 참을성 있게 노력함. 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유비가 난양[南陽]에 은거하던 제갈량을 세 번이나 찾아갔다는 데서 유래함.

* 훈척(勳戚): 나라를 위해 드러나게 세운 공로가 있는 임금의 친척.

* 권귀(權貴):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음. 또는 그런 사람.

* 백구지국(伯舅之國): 성씨가 다른 제후 국가 중에서는 제일 큰 나라.

* 변발(辮髮): 몽골인이나 만주인의 풍습으로, 남자의 머리를 뒷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깎아 뒤로 길게 뺏아 늘임. 또는 그런 머리.

* 호복(胡服): 만주인의 옷. 오랑캐의 옷차림.

* 상인(喪人): 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거상 중에 있는 사람.

출처: 정재찬 외, 『고등학교 문학』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는 기존의 학설이나 권위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존 스노를 예로 들어 사회 통념으로 새로운 가설을 무시한다면 과학의 발전은 늦춰질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군 당국이 드레퓔스의 무죄와 에스테라지의 유죄를 확신하고도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자신이 명예 훼손 행위로 기소될 수도 있지만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고자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2)번 예시 답안

[다]에서 ‘이 대장’은 ‘허생’에게 나라의 어진 인재를 등용할 계책을 묻는다. ‘허생’은 ‘이 대장’에게 임금이 직접 삼고초려할 것, 훈척과 권귀의 재산을 내어줄 것, 사대부들이 변발과 호복을 하고 만주족과 교류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대장’은 ‘허생’의 계책을 수용하지 못한다. 이는 [가]에서처럼 ‘이 대장’이 새로운 주장을 할 이단자가 못 되어서이기도 하고, [나]와 달리 당시 기득권자들의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이들을 고발할 용기가 없어서이기도 하다.

■ 채점 기준

1)번 문항

◆ 채점 기준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와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에서 기존 통념과 권위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요약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나]에서 저자는 군 당국이 드레퓔스의 무죄와 에스테라지의 유죄를 확신하고도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던 것을 비판하고, 자신이 명예 훼손 행위로 기소될 수 있지만 진실과 정의를 위해 고발하는 것이라고 요약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채점 기준

[가]와 [나]의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다]의 ‘이 대장’이 지닌 문제점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다]의 ‘허생’은 ‘이 대장’에게 임금이 직접 삼고초려할 것, 훈척과 권귀의 재산을 내어줄 것, 사대부들이 변발과 호복을 하고 만주족과 교류할 것 등의 계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대장’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를 활용해 ‘이 대장’이 새로운 주장을 할 용기 있는 이단자가 못 되어서라는 것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나]를 활용해 당시 기득권자들의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이들을 고발할 용기가 없어서라는 것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오후 · 문제 2

[문제 2]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를 평가하고, [라]를 바탕으로 [마]의 사례를 각각 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위협하거나 부정하는 모든 이념을 인류를 ‘노예의 길’로 이끄는 악이라고 보았다. 사회주의, 집단주의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는 ‘정부의 개입’도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제한적 지식에 의존하는 불완전한 존재다. 그렇게 오류에 빠지기 쉬운 개인들이 모여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는 마당이 시장이다. 개인들이 각자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하는 오류를 정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과 경쟁은 사회 발전의 필수적, 절대적 요소이며, 시장과 경쟁의 자유를 훼손하는 정부의 계획이나 정책은 사악한 것이다.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시장 바깥의 간섭을 배제하는 정책을 주장했다. 이러한 하이에크의 주장은 바로 ‘신자유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출처: 『한겨레』, 2019. 10. 19. (출제진 재구성)

[나]

케인스는 현실의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은 대등하지 않고, 그렇게 대등하지 않은 경제 주체들 사이의 자유 경쟁은 약육강식의 정글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케인스는 이 점을 이렇게 간명하게 요약했다. “이리 떼의 자유가 양 떼에게는 죽음을 뜻하는 경우가 흔하다.” 즉 간섭이 전혀 없는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와 ‘불공정한 소득 분배’ 등 이른바 시장 실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케인스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이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능동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케인스의 이러한 ‘수정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뉴딜 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으로 대공황 시기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다.

출처: 『한겨레』, 2019. 10. 19. (출제진 재구성)

[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외에서 확산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 이용자의 거주지와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구독료는 미국 본사의 매출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自國) 내 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대 IT 기업은 본사가 위치하지 않은 국가에서 많은 돈을 벌고도 정작 그 국가에 전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디지털세는 이러한 세금 체계를 수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디지털세 도입을 통해 거대 IT 기업들이 위치하지 않은 국가도 자국 내에서 매출을 일으킨 IT 기업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거대 IT 기업은 없지만, 이들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공정과세’를 강조하며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이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유럽 기업은 이익의 23.2%를 세금으로 냈지만, 글로벌 IT 기업들은 9.5%만을 냈다. 이들 정부는 디지털세를 통해 거대 글로벌 IT 기업과 자국 기업 간 공정한 과세를 하고, 심해지는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분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기술 개발에 따른 사업 환경 변화를 정부가 개입하여 세금으로 규제하면 기술 혁신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방해하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또 글로벌 IT 기업을 자국 내에 유치한 국가들의 반발도 심하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이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들은 디지털세 부과가 자국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稅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출처: 『동아일보』, 2018. 11. 3. (출제진 재구성)

[라]

정부는 시장 실패의 개선뿐만 아니라 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하는데, 이를 정부 실패라고 한다.

정부 실패의 원인은 다양하다. 무엇보다 정부도 다른 경제 주체들처럼 정보가 불완전할 수 있다.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정부도 정보의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잘못된 예측을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도 한다. 그 결과 최선의 대안을 수립하는 데 실패하여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

둘째, 유권자들이 정부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편익이 큰 사업에 반대하고, 반대로 사회적 비용이 큰 사업을 지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부는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

셋째, 정부의 모든 정책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이 경제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이해 집단의 압력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뤄지기도 한다. 그럴 경우 정책의 당초 취지가 변질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

이 외에도 정책의 경직성, 근시안적인 규제, 관료조직의 문제와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출처: 김종호 외, 『고등학교 경제』 (출제진 재구성)

[마]**(자료 1)**

정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노선 개발에 15조 958억 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개통된 고속도로의 실제 통행량은 노선 개발의 근거가 된 예상 통행량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량에 대한 잘못된 예측이 비효율적인 재정 투자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자료 2)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배기가스 제로법」을 만들고 자동차 회사가 의무적으로 무공해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도록 규제하였다. 이에 G사는 상용 전기 자동차를 양산하였고 소비자의 호응도 좋았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의 등장에 위협을 느낀 자동차 회사와 석유 회사들은 정부에 끈질기게 압력을 가했고, 결국 「배기가스 제로법」은 2003년 폐기되었다.

출처: 허수미 외, 『고등학교 경제』

■ 예시 답안

시장 실패에 대해 [가]는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관점을 설명한다. [나]는 적극적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스 수정자본주의 관점을 보여준다. [다]는 디지털세 논란을 다루는데, [가] 관점에서 디지털세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정부의 개입으로 기술 혁신에 악영향을 주며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나] 관점에서 디지털세를 통해 정부가 거대 글로벌 IT 기업과 자국 기업 간 공정한 과세를 하고 심해지는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분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마] (자료 1)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에 대한 예측 오류로 인해 발생한 정부 실패를 다루고 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정부도 정보 확보에 제약이 있고,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잘못된 예측을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 실패에 봉착할 수 있다. (자료 2)는 자동차 회사와 석유 회사들의 압력에 의해 좌절된 「배기가스 제로법」을 다룬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실패는 정책 결정에 반대하는 이해 집단의 압력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당초 취지가 변질되어 국가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발생했다.

■ 채점 기준

◆ 채점 기준

아래 내용을 근거로 평가한 정도에 따라 각각 점수 부여.

- [가]의 하이에크 신자유주의가 정부의 개입에 부정적인 관점을 갖는다는 점을 설명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 [나]의 케인스 수정자본주의가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설명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 [가]의 관점에서 디지털세는 정부의 개입이며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기술 혁신에 악영향을 주며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등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 [나]의 관점에서는 디지털세를 통해 거대 글로벌 IT 기업과 자국 기업 간 공평한 과세를 하고 심해지는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분배 역할을 정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 채점 기준

아래 내용을 설명한 정도에 따라 각각 점수 부여.

- [마](자료 1)의 정부 실패 원인을 정부 정보의 불완전성,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잘못된 예측 때문으로 설명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 [마](자료 2)의 정부 실패 원인을 정책 결정에 반대하는 이해 집단의 압력과 정치적 타협으로 당초 취지가 변질되어 국가 전체 효율을 떨어뜨렸기 때문으로 설명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함.

오후 · 문제 3

[문제 3] [가]의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의 자료에서 적절한 근거를 찾아 각각 제시하고, [다]를 활용하여 향후 주 4일제 도입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정부, 기업, 노동자의 역할을 제안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월화수목일일일’ 주 4일제 근무라는 직장인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난달 ‘주 4일제 근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표준 근로 시간 단축 법안을 발의하며 주 4일제 논의가 불붙고 있다. 노동계 등에선 직장 만족도 향상이나 삶의 질 개선 등을 이유로 내세워 찬성하지만, 기업계 등에선 생산성 저하나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을 들어 반대하는 모양새다.

출처: 『조선일보』, 2024. 4. 15. (출제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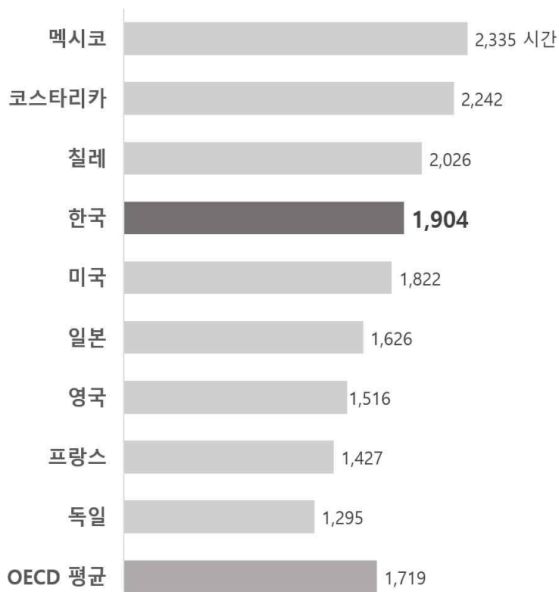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주 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으로 구직자들이 쏠리는 직업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공기관과 금융, 병원 근로자 업무 부담이 추가로 가중되고, 이용자와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 교수는 “국내서 주 4일제가 전반적으로 확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보기술(IT), 바이오, 소프트웨어, 빅테크와 같은 일부 고부가가치 업종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조선비즈』, 2024. 1. 2.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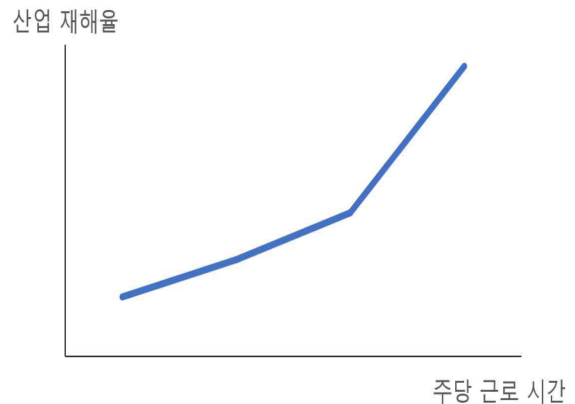
(자료 1)

<2022년 OECD 주요국 연평균 근로 시간>



출처: 『연합뉴스』, 2024. 3. 3.

<주당 근로 시간과 산업 재해율*의 관계>



* 산업 재해율: 전체 근로자 중 산업 재해(사망자, 부상자, 업무상 질병 요양자 등)를 당한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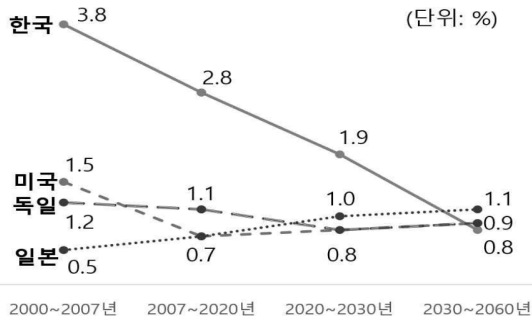
출처: 『연합뉴스』, 2021. 11. 21. (출제진 재구성)

(자료 2)

기술 진보가 중요하지만, 노동 투입량은 여전히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나라는 이민 정책으로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인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출처: 김종호 외, 『고등학교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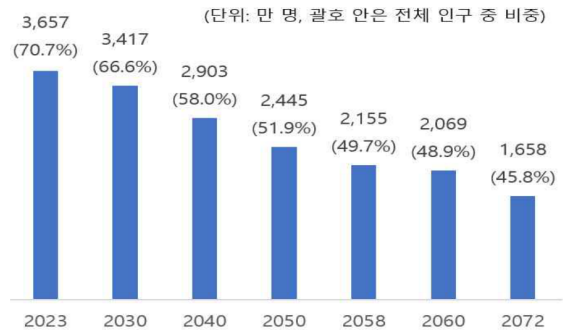
<국가별 1인당 잠재 성장률* 변화 추이>



* 잠재 성장률: 노동이나 자본 등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였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최대 성장 능력을 의미함.

출처: 『세계일보』, 2024. 1. 15.

<우리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 전망>



* 생산 연령 인구: 경제 활동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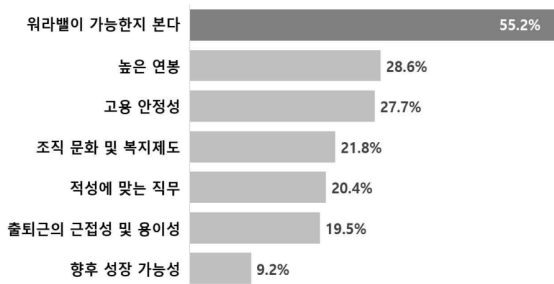
출처: 『매일경제』, 2023. 12. 14.

(자료 3)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과 사회 환경 속에서 인간은 이전과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대다수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던 때가 불과 수십 년 전인데, 지금은 대다수 사람이 도시에 모여 살고 직업도 다양하다. 사회적 관계의 범위와 형태도 다양해졌으며, 새로운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확산하면서 기존 사회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처럼 인간의 생활 방식, 의식 구조, 사회적 관계, 사회 구조 등이 총체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사회 변동이라고 한다.

출처: 구정화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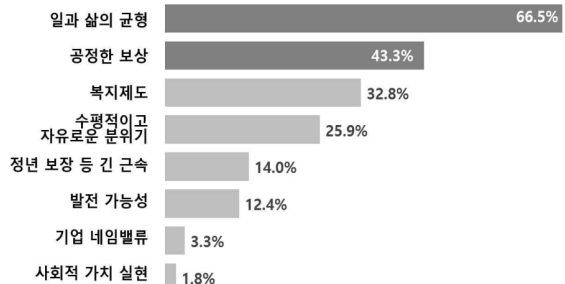
<회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



* 워라밸: 일과 생활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을 뜻함.

출처: 『디지털조선일보』, 2018. 3. 28.

<MZ 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 기준>



출처: 『이코노미스트』, 2022. 5. 21.

(자료 4)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적 자원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불평등은 주로 재산이나 소득의 차이로 나타난다. 정치적 불평등은 권력의 소유와 행사의 차이로 나타난다. 사회·문화적 불평등은 사회적 위신, 명예, 교육 수준, 지식 소유 등 사회·문화적 생활의 기회와 수준의 차이로 나타난다.

출처: 구정화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산업별 주 4일제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산업 구분	비율
교육	44%
제조업	41%
여행/운송	37%
소매유통	28%
금융	26%
정보기술(IT)/통신	17%

출처: 『ClickUp』, 2022. (출제진 재구성)

<기업 규모별 유연 근무제* 시행 비율>

기업 규모 구분	유연 근무제 시행 비율
직원 수 300명 미만	15.8%
직원 수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22.3%
직원 수 1,000명 이상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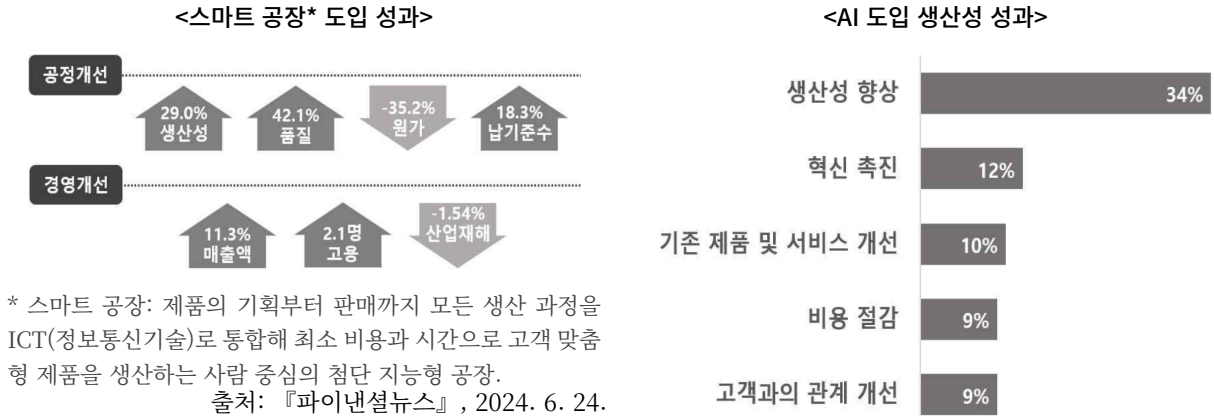
* 유연 근무제: 통상의 근무 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시간이나 근로 장소 등을 선택,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임.

출처: 『파이낸셜투데이』, 2017. 3. 9. (출제진 재구성)

[다]

경영자 중 이윤 창출을 위해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과감히 도전하는 정신과 의지를 가진 경영자를 기업가라고 하며, 이러한 도전하는 정신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기업가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출하고 신제품 개발에 도전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앞장선다. 나아가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한다. 이러한 기업가의 혁신을 통해 기업은 총수입을 증가시키고 총비용을 감소함으로써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출처: 김종호 외, 『고등학교 경제』



출처: 『정보통신신문』, 2024. 9. 25.

사회 갈등은 구성원 간의 충돌을 일으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사회 갈등은 사회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 갈등의 바람직한 해결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략)……

한편 국가는 사회적 분열이 구조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의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출처: 변순용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 모습>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부, 기업,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여 경제 사회 주체 간 협력을 협의하는 기구를 의미함.

출처: 『국민일보』, 2024. 3. 10.

노동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따른다. 노동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야 한다.

출처: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직장인 8명의 가짜 노동* 시간>

1월 11일~17일 직장인 8명의 가짜 노동 시간

이름	직업	가짜 노동 시간(분)	전체 근무 시간(분)
김○○	초등교사	740	2,850
이○○	공무원	770	2,410
김□□	제조업계	150	2,495
양○○	금융업계	440	2,940
이△△	공무원	1,665	2,685
강○○	사회복지사	710	1,950
김△△	공공기관	1,140	2,550
임○○	계약업계	730	2,720
합계		6,345	20,600

* 가짜 노동: 실제 성과와 상관없는 일, 보여주
식의 일, 단지 바빠 보이기 위한 일들을 의미함.

출처: 『한국일보』, 2024. 2. 27.

■ 예시 답안

주 4일제 도입은 [나]의 (자료 1, 3)을 근거로 찬성할 수 있다. (자료 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이 많고, 근로 시간이 많으면 산업 재해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 4일제 도입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자료 3)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에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 변동이 진행되고 있어 주 4일제 도입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반면 주 4일제 도입은 (자료 2, 4)를 근거로 반대할 수 있다. (자료 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과 생산 연령 인구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 4일제로 노동 투입량까지 줄어들 경우 국가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 (자료 4)에 따르면 산업별, 기업 규모별로 주 4일제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것이 새로운 사회·문화적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주 4일제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기업과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 기업은 스마트 공장, AI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는 주어진 업무 시간에 가짜 노동을 최대한 줄여 노동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채점 기준

◆ 채점 기준

- (자료 1)에서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 시간이 많고, 주당 근로 시간이 많을수록 산업 재해율이 증가한다는 점을 근거로 주 4일제 도입을 통해 근로 시간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2)에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생산 연령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주 4일제 도입으로 노동 투입량이 줄어들 경우 국가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3)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 변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 4일제 도입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자료 4)에서 산업별, 기업 규모별 특성에 따라 현실적으로 주 4일제가 도입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 4일제 도입이 새로운 사회·문화적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종합적으로 위의 자료들을 논리적이고 충실하게 활용한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채점 기준

- 정부의 입장에서, [다]에 제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주 4일제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비하고 사회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기업의 입장에서, [다]에 제시된 스마트 공장, AI 등과 같은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향후 주 4일제 도입으로 줄어들 노동 투입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노동자의 입장에서, [다]에 제시된 가짜 노동과 같은 비효율적 업무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024학년도 인문계열

오전 · 문제 1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근대로 들어오면서 일반 민중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에너지를 띠게 된다. 다스리는 자 입장에서는 이들을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질서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질서를 부과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억압한다는 것을 뜻한다. 근대의 권력 당국, 곧 국가와 종교는 그들의 권위에서 벗어나려는 자들을 제거하고 모든 국민들의 복종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국가는 종교로부터 이념을 빌리고 종교는 국가로부터 힘을 얻는다. 한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고마저도 함께해야 한다. 모두 같은 종교를 믿어야 하며, 종교의 신임을 받은 국왕을 잘 따라야 한다. 근대 국가는 ‘균질한 영혼’들이 국가 기구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했고, 이것이 마녀사냥이 결과적으로 행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지성은 갈수록 발달하고 사회는 더욱 문명화되는 것일까? 만일 그랬다면 지금쯤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을 것이며, 비참한 탄압과 야만적인 전쟁 같은 것은 아예 사라졌을 것이다. 마녀사냥과 같은 현상을 보노라면 우리 마음속에 집단 광기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된다. 마녀사냥은 그 모습 그대로는 근대 초 유럽의 특이한 현상이지만 유사한 현상은 언제나 있었다.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순한 세력! 그것은 히틀러에게는 유대인이었고, 파시스트들에게는 공산주의자들이었다. 때로 권력은 일부러 그런 위험 세력을 조작해 내서 사람들을 선동하려 한다. 그런 조작이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내면에 ‘마녀사냥’식의 충동이 잠재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출처 : 이삼형 외, 『고등학교 독서』

[나]

영국에 항복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런 대안이 없음을 깨달은 칼레의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항복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칼레의 사자를 접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의 태도는 전혀 누그러질 줄 몰랐다.

이때 왕의 측근 월테 머네이 경이 왕 앞에 나섰다. 측근까지 나서서 자비를 구하자, 잠시 생각에 잠긴 에드워드 3세는 마침내 마음을 고쳐먹은 듯 입을 열었다.

“좋다. 자비를 베풀겠노라. 모든 칼레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겠다. 그러나 지체 높은 사람들 가운데 여섯 명만은 예외이다. 그것이 나의 조건이다. 누군가는 그동안의 어리석은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 모든 칼레의 시민들을 대표하여 그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맨발로 나에게 걸어와야 할 것이며, 목에는 교수형에 쓸 밧줄을 매고 있어야 한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성문을 열고 들어갈 때 사용할 열쇠 꾸러미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하겠지.”

이 소식은 곧 파수대 앞에 모인 칼레의 시민들에게 전해졌다. 시민들은 결국 항복하게 되었다는 굴욕감과 그럼에도 대다수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 여섯 명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자괴감 등으로 피 같은 눈물을 흘렸다. 패자의 운명은 이렇듯 야속하고 수치스럽기 그지 없는 것이었다. 모두가 절망감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 외스타슈라는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내가 죽으러 가겠소. 자, 우리 자원해서 희생합시다. 우리는 싸움에 져서 항복했을 뿐이지 우리의 얼과 뼈마저 내어 준 것은 아니요. 제비뽑기 같은 것을 해서 희생자를 뽑는다면 그 구차함에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울 것이요. 우리 당당하게 죽읍시다. 자원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외스타슈는 칼레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이렇듯 제일 먼저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나서자, 다른 지도층 인사들도 다투어 나섰다. 그렇게 여섯 명이 채워졌고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송별하는 시민들을 뒤로한 채, 시장 광장에서 에드워드의 진지를 향해 나아갔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감에 싸여 통곡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출처 : 한철우 외, 『고등학교 독서』

[다]

여론의 압력은 계속되고 있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제멋대로 과장해서 보도했다. 『르 프티 주르날』 지는 정치적 편향을 보이지 않는 신문이었고 대체로 그런 이유 때문에 300만의 독자를 가진 신문이었지만 이렇게 선언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났더라면 드레퓔스는 국방부가 신임하는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 동료들을 자신의 목인 하에 놓인 덫에 걸리게 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었음은지도 모른다.”

『레코 드 파리』 같은 보수적인 신문은 아무런 인용 없이 드레퓔스가 병력 동원의 규모, 시간, 밀집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적에게 팔아넘겼다고 보도했다. “병력 동원 시간표를 다시 작성하는 데만도 3년이 걸릴 것”이라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최근에 일어났던 해결되지 않은 일련의 반역 행위의 책임까지 드레퓔스에게 돌려졌다. 드레퓔스는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도 어떤 신문은 그가 독일 귀족들과 함께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것이 목격된 적이 있다고 보도하며 그가 묵은 것으로 ‘알려진’ 호텔의 이름과 객실의 번호까지 밝혔다.

주요 일간지인 『르 탕』 지와 『르 마탱』 지는 드레퓔스가 어떤 연애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신문에 따르면 드레퓔스는 니스에 사는 귀족 출신의 이탈리아 미녀를 애인으로 갖고 있었다. 그를 유혹해서 반역 행위를 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여자였다고 이 두 신문은 공언했다.

“드레퓔스는 프랑스 국민을 파멸시키고 프랑스 영토를 차지하려고 획책해 온 국제적 유대인 조직의 스파이”라고 가톨릭계 신문인 『라 크루아』 지는 썼다. 『라 리브르 파롤』, 『라 코카르드』, 『라 파트리』 등의 신문은 모두 입을 모아 드레퓔스를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했다.

참모본부는 드레퓔스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뒤따를 것인지 명백히 내다볼 수 있었다. 메르시에는 사직하게 될 것이며 아마 내각 자체도 무너지게 될 것이었다.

출처 : 니콜라스 할라스, 『나는 고발한다』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선동이다. 권력은 때로 일부러 위험 세력을 조작해 사람들을 선동하려 한다. 근대 국가는 일반 민중들이 국가 기구에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해 위험 세력을 조작했는데, 이것은 마녀사냥이 결과적으로 행한 역할이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파시스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순한 세력으로 만들어 국민들을 선동하였다.

2번) 예시 답안

[나]에서 외스타슈는 영국에 항복하는 과정에서 칼레의 시민에게 당당한 죽음의 희생을 선동하였다. 칼레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외스타슈가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의 항복 조건에 맞서 당당한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칼레 시민들의 목숨을 지키자고 선동하자 다른 지도층 인사들도 다투어 나섰다.

[다]는 드레퓔스 사건에 대한 언론의 선동을 보여 주는 글이다. 프랑스의 언론은 드레퓔스 사건을 제멋대로 과장해서 보도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일련의 반역 행위의 책임까지 드레퓔스에게 돌리며 그를 반역자이자 국제적 유대인 조직의 스파이로 몰아갔다. 이 글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밝히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중을 선동하려고만 하는 언론의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 채점 기준

1)번 문항

◆ 채점 기준

-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인 '선동'을 찾아내면 5점, 아닐 경우 0점을 부여함

◆ 채점 기준

- 주제어 '선동'을 이용하여 [가]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선동'을 이용하여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선동'을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선동'을 이용하여 [다]의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선동'을 이용하여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오전 · 문제 2

[문제 2] [가]의 관점에서 [나]를 설명하고, [다]의 관점에서 [라]를 평가하고 근거를 제시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차이에 의해 능력과 업적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능력과 업적만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고 본다. 더욱이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은 인종, 지역, 가정 환경 등 외적 조건에 따라 교육과 훈련 여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하자는 견해는 능력과 업적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생겨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와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개선하며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개인의 성취동기와 창의성을 저하시켜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가치 있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출처 : 박병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출제진 재구성)

[나]

미국의 흑인 실업률이 두 달 연속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지난 6월 고용 통계에서 나타났다. 노동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한 초기 징후가 보이는 가운데, 노동자 이탈이 진행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탈 현상은 한결같지 않다. 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흑인 실업자 수는 5~6월 26만 7,000명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30만 명 증가한 실업자 수의 90% 가까이를 차지한다.

6월 고용 통계에 따르면 흑인 실업률은 6%로 상승해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백인 실업률은 3.1%로 낮아져 흑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흑인 노동자들은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한 국면에서 가장 먼저 해고되는 경향이 있다고 조사 분석에서 지적되고 있다. 고용자 수가 최근 감소한 것은 노동시장 전체에 하나의 위험 초기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매체는 평가했다.

……(중략)……

흑인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시장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참여율은 그동안 개선세를 이어가면서, 올해는 한 때 15년 만의 높은 수준에 도달했었다. 그러나 고용자 수는 3개월 기준으로 3% 감소했다. 사상 최대의 감소율을 기록한 것이다. 노동시장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 중시되는 흑인과 백인의 실업 격차도 확대로 돌아섰다.

출처 : 『초이스 경제』, 2023. 7. 11.

최근 맥킨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 후 미국 흑인이 종사하고 있는 45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맥킨지 파트너 겸 보고서 공동 저자인 제이슨 라이트는 “현대의 경제에 존재하는 현대화, 자동화, 글로벌 전환에 미국 흑인들은 백인들과 비교하여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전체 노동력에서 22%의 일자리가 AI 및 자동화로 인하여 ‘파괴’되어 없어지거나 저임금으로 대체될 것이지만, 미국 흑인 노동력의 사례는 10%포인트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추산은 아무런 대책이나 중재가 없다면 2030년까지 450만 개의 흑인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중략)……

AI 및 자동화는 이미 확대되고 있는 인종적 부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백인 가구와 흑인 가구 사이의 재산 차이는 1992년 이후 54,000달러 증가했다. 백인 미국인들은 흑인 미국인들에 비해 더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고 학생 부채를 덜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고용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출처 : 『AI타임스』, 2019. 10. 9.(출제진 재구성)

[다]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소수자 우대 정책이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부당한 차별을 받는 대상을 우대하는 제도나 정책이 도리어 상대방을 차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수자 우대 정책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소수자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실제 차별을 받았던 것인지, 혜택을 받는 사람의 자존감이 손상되지는 않는지, 노력과 성취에 따른 업적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등이 쟁점이 된다. 따라서 역차별의 문제를 균형감 있게 살펴보고,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소수자 우대 정책은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소수 집단이나 이에 영향을 받은 후손에게 차별을 보상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다. 또 소수자 우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다양성과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으며,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을 먼저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한편 보상 받는 자는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당사자가 아닐 수 있고 현재 보상하는 사람들도 과거 차별을 가했던 당사자가 아닐 수 있다. 소수자 우대 정책은 사회적 약자의 자존감을 손상할 수 있고, 역차별로 인한 다수 집단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출처 : 변순용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출제진 재구성)

[라]

19일(현지 시간)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인근 대학 견학을 추진하는 미국 인디애나 주 사우스벤드 지역의 7개 초등학교가 지난 16일 견학 참가 학생을 흑인으로만 제한해 논란을 일으켰다.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백인 학생의 학부모는 이중 잣대에 따른 인종차별이라며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20일 2차 대학 방문 때에는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대학 견학을 기획한 이는 사우스벤드 지역 학교 흑인 학부모·학생 자치 연합의 책임자로 선임된 흑인 데이비드 모스 박사다. 모스 박사는 흑인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낮은 점을 들어 이들에게 동기를 주기 위한 행보라며 차별 논란을 부인했다. 그는 “많은 어린 흑인 학생이 흑인 대학생을 본보기로 삼고 대학은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한 일”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중략)……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콜러』는 최근 공립학교에서 흑인 학생만을 위한 의도적인 백인 역차별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데일리 콜러』를 보면,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주 베네시아 중학교의 한 흑인 여성 교사는 수업 시간에 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미국의 민권 운동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고 나서 인종 문제와 관련한 설문지를 나눠 줬다. 같은 달 일리노이 주 시카고 외곽의 오크 파크 리버 포리스트 고교에서도 백인 학생을 배제한 채 오로지 흑인 학생을 위한 ‘흑인의 삶은 소중하다’는 행사가 열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15. 4. 20.

■ 예시 답안

[가]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차이에 의해 능력과 업적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은 불평등, 불공정하다고 본다. 이 견해는 다양한 복지 제도와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근거가 된다. [나]에 의하면 흑인 실업률이 백인 실업률의 2배 수준이며, 자동화와 AI로 인해 흑인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므로 [가]의 관점에서 [나]는 불평등, 불공정한 현상이다.

[라]에서는 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대학 견학, 민권 수업, 인권 행사를 진행하였다. [다]의 소수자 우대 정책에 찬성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 견학, 수업, 행사는 정당하다.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소수 집단이나 그 후손에게 차별을 보상하여 과거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다양성과 공동선을 실현하며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자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 견학, 수업, 행사는 부당하다. 보상 받는 자는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당사자가 아닐 수 있고, 보상하는 사람들도 과거 차별을 가했던 당사자가 아닐 수 있으며, 소수자 우대 정책이 사회적 약자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다수 집단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채점 기준

◆ 채점 기준

- [가]의 관점에서 [나]의 결과적 불평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채점 기준

- [다]의 두 관점에서 [라]를 평가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다]의 소수자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관점에서 [라]를 평가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 [다]의 소수자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관점에서 [라]를 평가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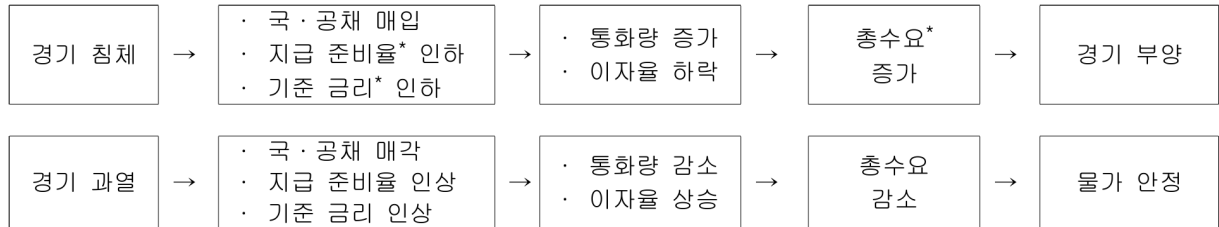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오전 · 문제 3

[문제 3] [가], [나], [다]를 서로 연관 지어 설명하고, [라]를 활용하여 [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 지급 준비율 : 시중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급 준비율을 인하면 은행의 대출 가능 자금이 증가하여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반대로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의 대출 가능 자금이 감소하여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 기준 금리 : 한국은행이 금융 기관과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 금리이다.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 금리는 시중의 예금 및 대출 금리의 변동으로 이어져 실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 총수요 :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의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합한 것이다.

출처 : 허수미 외, 『고등학교 경제』 (출제진 재구성)

<한국은행 기준 금리 변동 추이>

(단위 : %)

변경 일자		기준 금리
2019년	07월 18일	1.50
2019년	10월 16일	1.25
2020년	03월 17일	0.75
2020년	05월 28일	0.50
2021년	08월 26일	0.75
2021년	11월 25일	1.00
2022년	01월 14일	1.25
2022년	04월 14일	1.50
2022년	05월 26일	1.75
2022년	07월 13일	2.25
2022년	08월 25일	2.50
2022년	10월 12일	3.00
2022년	11월 24일	3.25

출처 : 한국은행, 202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 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 금리를 연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0.75%→1%)에 이은 연속 금리 인상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기준 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다만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1년 10개월 만에 기준 금리는 코로나19 본격 확산 이전 수준(연 1.25%)으로 복귀했다.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당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0.5%포인트(1.25%→0.75%) 대폭 인하했고, 이어 2020년 5월 추가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통화 정책 정상화에 나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낸 건 치솟는 물가를 억누르려는 중앙은행의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5%가 오르며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2%)를 웃돈다.
출처 : 『중앙일보』, 2022. 1. 14.(출제진 재구성)

[나]

<코스피 지수* 추이>

	2019.12.	2020.12.	2021.12.	2022.12.
코스피 지수	2,198	2,873	2,978	2,236

* 코스피 지수 : 한국 거래소 상장 기업들의 주식 가격 변동을 기준 시점과 비교하고 주식 수를 가중 평균하여 작성한 지수이다.
출처 : 한국거래소, 2023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 추이>

	2019.12.	2020.12.	2021.12.	2022.12.
수도권	112	136	168	130
지방	95	107	120	107
전국	103	120	142	118

*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 : 매월 지자체에 신고된 실제 아파트 거래 가격 자료를 토대로 기준 시점인 2017년 11월을 지수 100으로 하고 해당 연월의 가격 변화를 상대가격으로 표시한 지수이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2023

[다]

<신용 거래 용자 잔고* 추이>

(단위 : 백만 원)

	2019.12.	2020.12.	2021.12.	2022.12.
신용 거래 용자 잔고	9,213,276	19,221,357	23,089,636	16,518,648

* 신용 거래 용자 잔고 :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빚을 내서 주식을 산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금융투자협회, 2023

<예금 취급 기관의 주택 담보 대출금 잔액* 추이>

(단위 : 조 원)

	2019.12.	2020.12.	2021.12.	2022.12.
주택 담보 대출금 잔액	843	911	982	1,013

* 예금 취급 기관의 주택 담보 대출금 잔액 : 은행이나 금융 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빌린 금액 중 갚지 않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출처 : 한국은행, 2023

<가계 대출 현황>

		2019.12.	2020.12.	2021.12.	2022.12.
차주*수 (십만 명)		194	196	199	198
대출 잔액 (조 원)		1,622	1,753	1,869	1,861
차주당 대출 잔액 (십만 원)		837	893	940	939
총부채 원리금 상환	차주수 (십만 명)	26	27	28	30
비율* 70% 이상	비율 (%)	13.5	13.5	14.2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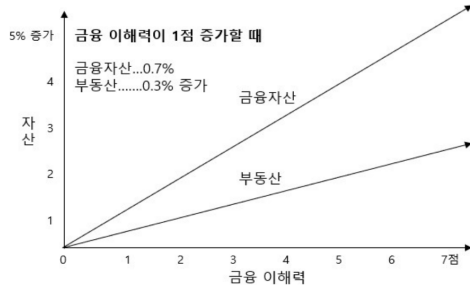
* 차주 : 대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70% 정도면 최저 생계비만 빼고 거의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출처 : 한국은행, 2023

[라]

<금융 이해력*과 자산과의 관계>



* 금융 이해력 : 금융 정보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금융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출처 : 『조선일보』, 2020. 1. 7.

<수익성과 안전성의 관계>



출처 : 김종호 외, 『고등학교 경제』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에 대한
국가별 대답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호주	가족	직업	친구	돈	사회
뉴질랜드	가족	직업	친구	돈	사회
스웨덴	가족	직업	친구	돈/건강	
프랑스	가족	직업	건강	돈	친구
그리스	가족	직업	건강	친구	취미
독일	가족	직업/건강		돈/궁정	
캐나다	가족	직업	돈	친구	사회
싱가포르	가족	직업	사회	돈	친구
이탈리아	가족/직업		돈	건강	친구
네덜란드	가족	돈	건강	친구	직업
벨기에	가족	돈	직업	건강	친구
일본	가족	돈	직업/건강		취미
영국	가족	친구	취미	직업	건강
미국	가족	친구	돈	직업	믿음
스페인	건강	돈	직업	가족	사회
한국	돈	건강	가족	사회/자유	
대만	사회	돈	가족	자유	취미

출처 : 『뉴스로드』, 2021. 11. 25.

<2018~2020년 OECD 국가 행복 지수 순위>

(단위 : 점, 10점 만점 기준)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핀란드	7.84	19	벨기에	6.83
2	덴마크	7.62	20	프랑스	6.69
3	스위스	7.57	21	스페인	6.49
4	아이슬란드	7.55	22	이탈리아	6.48
5	네덜란드	7.46	23	슬로베니아	6.46
6	노르웨이	7.39	24	슬로바키아	6.33
7	스웨덴	7.36	25	멕시코	6.32
8	룩셈부르크	7.32	26	리투아니아	6.26
9	뉴질랜드	7.28	27	에스토니아	6.19
10	오스트리아	7.27	28	칠레	6.17
11	호주	7.18	29	폴란드	6.17
12	이스라엘	7.16	30	라트비아	6.03
13	독일	7.16	31	콜롬비아	6.01
14	캐나다	7.10	32	헝가리	5.99
15	아일랜드	7.09	33	일본	5.94
16	영국	7.06	34	포르투갈	5.93
17	체코	6.97	35	한국	5.85
18	미국	6.95	36	그리스	5.72

출처 : 『중앙일보』, 2021. 5. 19.

프랑스 혁명 당시 정권을 잡은 로베스피에르는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폭등하여 민심이 나빠지자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목으로 가격 통제에 나섰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더불어 민심도 얻겠다는 의도였다.

그는 우윳값이 비싸 자녀들에게 우유를 먹일 수 없다는 어머니들의 원성에 우유 가격 인하를 명령했다. 강제적인 우유 가격 인하 직후에 우유를 싼 가격에 마실 수 있게 된 다수의 국민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생산 비용도 보전하기 어렵게 된 목축업자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였고, 우유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우유 가격은 오히려 더 폭등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로베스피에르가 내놓은 방안은 사료비 통제였다. 사료업자들 역시 도산하고 말았고, 결국 우유는 품귀 현상이 발생하여 가격 통제 이전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러야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은 그 목적과 다르게 시장 질서를 왜곡하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특히 대중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처럼 합리적이지 못한 경제정책은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는커녕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된다.

출처 : 김종호 외, 『고등학교 경제』

[마]

“작년에 집값이 너무 올라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꿔요. 그래서 그 돈으로 더 주식 투자에 올인했던 것 같아요. 주식은 난생처음이라 남들 다 버는 장이었다고 하는 데 그리 많이 벌진 못했습니다.”(32세 직장인 A 씨)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년 A 씨처럼 주식에 ‘빚투(빚내서 투자)’한 2030 세대가 급증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년들이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기준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 빚투한 청년들은 괜찮을까?

출처 : 『뉴시스』, 2021. 6. 26.

이지환(25, 가명) 씨는 평소 형들에게 “남자는 무조건 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형들의 부추김에 외제차를 타 보고 싶은 욕구는 더욱 강해졌다. 비싼 차에 대한 욕망은 군대에서 극에 달했다. 소심한 성격 탓인지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때마다 외제차를 몰고 거침없이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멋진 차를 타고 여자 친구와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겠다고 다짐했다. 주변의 부러워하는 시선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고 이런 상상들이 군대 생활을 버티게 해줬다.

2019년 말 23살이 됐을 때 이 씨의 상상은 현실이 됐다. 당시 카드를 썼던 이력 때문에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내려간 상황이었다. 제1 금융권 시중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제2 금융권 캐피탈에서 자동차 가격을 뛰어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었다. 마침내 이 씨는 차량 금액 4,300만 원 전액을 대출 받고 중고 외제차의 차주가 됐다. 이 씨의 차는 친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고 그는 자신감을 얻었다. 여자 친구는 항상 차로 데리러 와 달라고 부탁했고 지인의 드라이브 요청도 많았다. 카페나 식당에 갈 때는 일부러 주차장이 큰 곳만 골라 갔다.

1년이 넘자 격월로 고장이 발생했다. 딜러가 20만 km까지 무상 보증 혜택 대상 차량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서비스 센터에 가면 특수 부위 수리라 비용을 내야 한다는 말만 돌아왔다. 주로 우측 로커암 커버와 스로틀 바디 문제였다. 1년 새 수리비만 1,000만 원이 나왔다. 유류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은 한 달에 200만 원이다. 숨만 쉬어도 차량 유지비 200만 원이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셈이다. 이 씨는 지금 심정을 두 마디로 표현했다. “빠듯하다.” 그리고 “후회한다.”

출처 : 『국민일보』, 2021. 12. 25.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집중한 지역들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규제 강화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을 자극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금융 안정 연구팀 ○○○ 차장은 이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10일 발표하며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등으로 집값 상승이 억제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출처 : 『SBS Biz』, 2023. 7. 11.

■ 예시 답안

[가]는 한국은행이 코로나19 당시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기준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했고, 코로나19 이후 경기 과열에 대한 대응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했음을 나타낸다. [나]는 늘어난 통화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시장에 흘러들어가 해당 자산의 가격이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다]는 많은 사람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거나, 은행이나 금융 기관으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했음을 나타낸다. 그 결과 가계 대출 잔액이 증가하였고, 최근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대출 받은 사람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다]의 원인이 되는 [마]는 금융 이해력이 낮은 개인의 무분별한 투자, 물질적인 풍요를 과시하고 부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나타낸다. 따라서 [다]와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은 금융 이해력을 높여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투자하여야 하고,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의미하지 않음을 이해하며 무리한 대출과 과소비를 지양하여야 한다. 정부는 시장 질서를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자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채점 기준

◆ 채점 기준

- [가]는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대응으로 기준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했고, 코로나19 이후 경기 과열에 따라 과도하게 증가된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기준 금리를 인상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나]와 [다]는 늘어난 통화량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었고, 많은 사람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거나, 은행이나 금융 기관으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였다. 그 결과 최근 가계 대출 잔액은 1,861조 원에 이르렀고, 이자율이 오름에 따라 대출 받은 사람의 대출금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채점 기준

- [다]의 원인이 되는 [마]가 금융 이해력이 낮은 개인의 무분별한 투자, 물질적인 풍요를 과시하고 부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 자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실패임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라]에 제시된 사항을 이용하여 개인은 금융 이해력을 높여 감당할 수 있는 위험 내에서 투자하여야 하고, 지나친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경계해야 하며, 정부는 시장 질서를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자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해결 방안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오후 · 문제 1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아주 옛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빚으면서, 각자의 목에 두 개의 보따리를 매달아 놓았다고 한다. 보따리 하나는 다른 사람의 결점으로 가득 채워 앞쪽에, 또 다른 보따리는 자신들의 결점으로 가득 채워 등 뒤에 달아 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에 매달린 다른 사람의 결점들은 잘도 보고 시시콜콜 이리 뒤지고 저리 꼬투리 잡지만, 뒤에 매달린 보따리 속의 자기 결점은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아무리 평판 좋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비난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인간 성향이라는 게 모두 양면적이라서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서로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주 겸손하고 나서기 꺼려하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다고 비난하고, 반대로 박력 있고 당당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고 되바라졌다고 욕한다. 그런가 하면 쾌활하고 잘 웃으면 사람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고 욕하고, 잘 웃지 않고 진중하면 괜히 무게 잡는다고 욕한다. 상냥하고 사근사근하면 내숭 떨고 여우 같다고 욕하고, 상냥하지 못하면 뻔뻔하다고 욕한다. 너그럽고 많이 베푸는 사람에겐 잘난 척하고 우월감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고, 잘 베풀지 않는 사람은 또 구두쇠이고 편협하다고 욕한다.

……(중략)……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우리들. 앞뒤로 보따리 하나씩 메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앞 보따리를 뒤적거려 보지만, 결국은 앞 보따리나 뒤 보따리나 속에 들어 있는 건 매한가지이다. 이렇게 보면 장점이 저렇게 보면 단점이고, 저렇게 보면 단점이 이렇게 보면 장점이다. 결국 장단점이 따로 없지만, 어차피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제각각 나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보니, 이리저리 찌그러지고 희미하고 탐탁지 않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서로 다른 안경을 끼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못생겼다고 홍보며 사는 세상이 항상 시끄러운 것도 당연하다.

가끔 누군가 내게 행한 일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며칠 동안 가슴앓이하고 잠 못 자고 하다가도 문득 ‘만약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나라도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면 꼭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오죽하면 그랬을까.’하는 동정심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리고 그 대상이 나였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면서 ‘까짓것, 그냥 용서해 버리자.’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헤아릴 때 생기는 기적이다.

출처 : 이승원 외, 『고등학교 문학』

[나]

“나는 한평생 해를 연구해 온 사람ियो. 나도 한때는 해에 대해 당신들과 같은 식으로, 그러나 당신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적이 있었소. 하지만 더욱 많이 그리고 더욱 확실하게 해를 알려다가 종당엔 이 두 눈만 잃어버리고 말았소. 너무 자주, 오래 해를 쳐다보다가 뜨거운 햇살에 두 눈의 동자가 타 버린 것이요. 그런데 한번 두 눈을 잃자 갑자기 해는 있다는 것조차 의심스런 것이 되고 말았소이다. 그렇소. 정녕 해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진 어떤 추상일 뿐ियो. 왜냐하면 모든 사물의 겉모습은 우리들의 온전치 못한 감각이 그때그때 나름대로 받아들인 일시적이고도 자의적인 느낌일 뿐, 그 본질과는 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यो.”

“그럼, 사물의 겉모습이란 결국 뭐란 말ियो?”

한참 지난 뒤에야 겨우 어렵풋하게나마 그 장님의 말을 알아들은 사내 하나가 그렇게 물었다. 장님은 더욱 단정적으로 대답했다.

“그 이름에 걸쳐 둔 녀마 같은 것이요. 예를 들어봅시다. 해의 빛깔만 하더라도 우리는 대부분 아무런 의심 없이 희다 혹은 붉다 따위로 단정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정확하지 못한 두 눈이 멋대로 정한 느낌일 뿐이요. 만약 그늘을 낀 수정판과 같은 각막을 가진 짐승이 있다면 태양은 겨울 달처럼 새하얗다고 말할 것이며, 연한 자수정 각막을 통해 보면 핏빛처럼 빨강계 보일 것이요, 잘 간 에메랄드 같은 각막을 지닌 눈에는 보라색이라고 주장될 것이고, 금강석처럼 깎인 각막을 통해 보면 오색이 영롱할 것이요. 또 모르긴 하되, 어떤 생물에게는 그저 막연한 밝음일 수도 있는 것처럼 어떤 생물에게는 빛이 아니라 열기로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빛깔은 없는 게 되고, 그것은 장님이 된 이 나에게도 마찬가지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해는 빛깔이 없소. 있다면 지난날 두 눈을 뜨고 있을 때 받았던 어떤 느낌의 기억이나 말이 가진 추상뿐. 해의 크기나 모양이나 성질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소. 우리는 흔히 해는 얼마만 하고 어떻게 생겼으며 그 성질은 어떠하다는 등 말을 하지만 기실 그것은 우리들 오관의 주관적인 단정에 지나지 않소. 만약 위대한 이성이 있어,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우며 때로는 기만적이기도 한 오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모든 존재는 말 특히 이름만이 확실할 뿐인 순수한 추상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이요.

나도 실은 시각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걸 깨달았소. 그리하여 오관의 감각들마저 이성의 힘으로 봉해 버리자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해는 내게 없어져 버린 거요. 있다면 오직 해란 말이 가진 순수한 추상뿐이요.”

출처 : 이문열, 『사람의 아들』

[다]

공정 무역 인증은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바나나, 초콜릿, 커피, 설탕, 차 등 개발 도상국의 생산 작물에 적용된다. 공정 무역 인증서는 최저 임금 지급, 구체적인 안전 요건 준수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 생산자에게만 부여된다. 공정 무역 인증에는 두 가지 혜택이 따른다. 첫째, 생산자는 생산 제품에 대해 최저 가격을 보장 받는다. 가령 원래 1파운드당 1.4달러였던 커피의 시장 가격이 추후 그보다 떨어지더라도 커피 생산자는 1.4달러를 보장 받는다. 둘째, 생산자들은 시장 가격에 붙는 웃돈인 ‘소셜 프리미엄’을 받는다. 커피 시장 가격이 1.4달러 이상 오르면 생산자들은 파운드당 20센트를 추가로 받는 식이다. 이 소셜 프리미엄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정된 지역 공동체 사업 기금으로 쓰인다.

공정 무역 인증 마크가 처음 등장한 1988년 이후로 공정 무역 상품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 세계 공정 무역 인증 상품의 매출이 69억 달러에 육박했다. 타국의 농부가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웃돈을 얹어 주면서까지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은 감동적이다. 그런데 일반 커피보다 몇 달러 더 주고 공정 무역 커피를 사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첫째, 공정 무역 제품을 산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나라의 빈곤층에 수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공정 무역 인증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다.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 무역 제품을 사는 것이 농부들에게 더 많은 몫을 되돌려 주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공정 무역 제품을 사는 것보다 최빈국의 비공정 무역 상품을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둘째, 공정 무역 제품이라는 까닭으로 소비자가 추가로 지급한 돈 가운데 실제로 농부들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은 극히 일부이다. 나머지는 중개인이 갖는다. 세계은행 경제 자문관인 피터 그리피스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추가 금액 가운데 가난한 나라의 커피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1퍼센트 미만이다.

셋째,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그 적은 몫마저 더 많은 임금으로 바뀐다는 보장이 없다. 공정 무역 인증은 인증 받은 단체가 생산한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쳐주는 절차이지, 해당 단체에 소속된 생산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런던 대학교 동양 아프리카 연구소의 크리스토퍼 크레이머 교수가 이끈 연구팀이 4년에 걸쳐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에서 일하는 공정 무역 노동자들의 임금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비공정 무역 노동자들보다 임금이 더 낮고 노동 조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 무역이 큰 성과로 내세우는 지역 공동체 사업에서도 정작 극빈층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쯤 되면 공정 무역 제품을 살 까닭이 없다. 기껏해야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노동자에게 아주 미미한 금액을 보태 줄 따름이다. 차라리 더 저렴한 상품을 사고 그렇게 절약한 돈을 비용 효율성이 높은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낫다.

출처 : 고희진 외, 『고등학교 독서』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이해이다. 인간의 성향은 양면적이라서 상반되게 이해한다. 나의 기준에 따라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제각각의 입장에서 남을 보니 서로 홍보는 시끄러운 세상이 된다. 그런데 남이 나에게 행한 일이 부당해 보이더라도 남의 입장을 나의 입장으로 이해한다면, 나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남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2번) 예시 답안

[나]에 등장하는 장님은 장님이 아닌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이해에서 차이를 보인다. 장님은 장님이 아닌 사람이 감각 기관을 통한 일시적이고 자의적인 느낌으로 사물의 겉모습을 이해한다고 본다. 예컨대 감각 기관의 주관적인 느낌을 통해 해가 어때하다고 말하면서 해를 분명한 실체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장님은 감각 기관에서 자유로워 순수한 추상으로 해를 이해한다.

[다]는 공정 무역 인증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다. 이 제도의 원래 목적은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그 원래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 가난한 나라에 수익이 돌아가지는 않고, 실제로 노동자의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공정 무역 인증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은 그 실효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채점 기준

1)번 문항

◆ 채점 기준

-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인 ‘이해’를 찾아내면 5점, 아닐 경우 0점을 부여함

◆ 채점 기준

- 주제어 ‘이해’를 이용하여 [가]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이해’를 이용하여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이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이해’를 이용하여 [다]의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이해’를 이용하여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오후 · 문제 2

[문제 2] [가]를 활용하여 [나]와 [다]를 설명하고, [라]의 두 관점에서 각각 [마]를 평가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세계 곳곳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영역에 걸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는 개별 국가나 지역을 넘어 여러 국가나 국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국제 문제라고 한다.

……(중략)……

국제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한 국가가 해결하기 곤란하며 다수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국제 문제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해결 방안에 대한 국가 간 합의 도출이 어려워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중앙 정부가 없는 국제 사회의 특성상 개별 국가에 대하여 합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도 쉽지 않다.

출처 : 서범석 외, 『고등학교 정치와 법』 (출제진 재구성)

[나]

2020년부터 적용되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은 지구 온난화 등에 대응해야 할 의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지우고 이를 이행할 새로운 방안을 담았다. 특히,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등이 협약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온실가스 감축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의무 감축분을 하향식으로 할당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각국이 스스로 감축 목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개발 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개발 도상국의 반감을 줄였다.

출처 : 이경호 외, 『고등학교 정치와 법』

[다]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중동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폭증하면서 유럽 국가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왔던 서유럽 4대 주요국(빅 4 :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끼리 노골적으로 반목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25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독일 정부가 이탈리아 정부와 상의 없이 지중해에서 불법 이민자 구조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NGO)에 자금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경악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 간에 이렇게 날이 잔뜩 선 메시지가 적나라하게 전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출처 : 『조선일보』, 2023. 9. 27.

[라]

국제주의는 개별 국가를 전제로 하면서도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향한다. 이러한 국제주의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가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가 롤스이다.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 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즉 해외 원조의 의무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에 있다는 것이다. 롤스에 따르면 억압이나 폭력, 기아나 빈곤과 같은 문제는 국내 정치·사회 제도의 부정의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정치적 부정의함이 제거되고 정의로운 제도가 수립되면 그와 같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다.

……(중략)……

세계 시민주의는 인종이나 국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며 보편적 인류애를 강조한다. 이러한 세계 시민주의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가 싱어이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세계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원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싱어에 따르면 우

리가 커다란 희생 없이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무조건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원조의 의무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익 평등의 고려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보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싱어는 고통을 겪는 인간을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마]

2011년 3월 19일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합동으로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와 독재자 카다피의 관저를 맹렬히 공습하였다. 리비아에서는 2월 중순부터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고, 카다피는 시위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사살하였다. 국제연합(UN)*은 카다피 정부에 무력 진압과 시민 학살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카다피 정부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였다. 오히려 시위가 확산하자 시위자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학살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위협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국제연합은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결정하였다.

국제연합의 군사 개입으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지 248일 만에 카다피의 독재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리비아 군사 개입은 민간인 학살을 막았다는 점에서 인도적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리비아의 향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 국제연합(UN) :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제 우호 관계의 증진 등에 관한 국제 협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 예시 답안

[가]에 의하면 국제 문제는 개별 국가나 국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국가들은 그 해결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갈등한다. [나]는 국가들이 국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채택하여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다]는 불법 이민자 문제가 국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국가들은 자국의 입장을 우선시하여 협력하지 않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라]는 해외 원조에 관한 국제주의와 세계 시민주의를 소개한다. 롤스와 싱어는 모두 해외 원조에 관한 윤리적, 도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두 견해는 주로 해외 원조에 관한 것이지만 국제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사회의 구조와 제도의 개선에 있다고 주장한다. 롤스의 견해에 의하면 리비아의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마]의 무력 개입은 국제 문제의 해결에 충분하지 않다. 싱어는 고통을 겪는 인간을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싱어의 견해에 의하면 국제연합 등 국제 사회가 무력을 사용하여 리비아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저지한 [마]의 행위는 정당하다.

■ 채점 기준

◆ 채점 기준

- [가]의 관점을 활용하여 [나]와 [다]의 국제 문제에 대한 협력과 갈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에 나타난 국제 문제 ‘협력’의 관점에서 [나]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
- [가]에 나타난 국제 문제 ‘갈등’의 관점에서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

◆ 채점 기준

- [라]의 두 관점에서 [마]를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라]의 국제주의(롤스)의 관점에서 원조의 당위성을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 [라]의 세계 시민주의(싱어)의 관점에서 원조의 당위성을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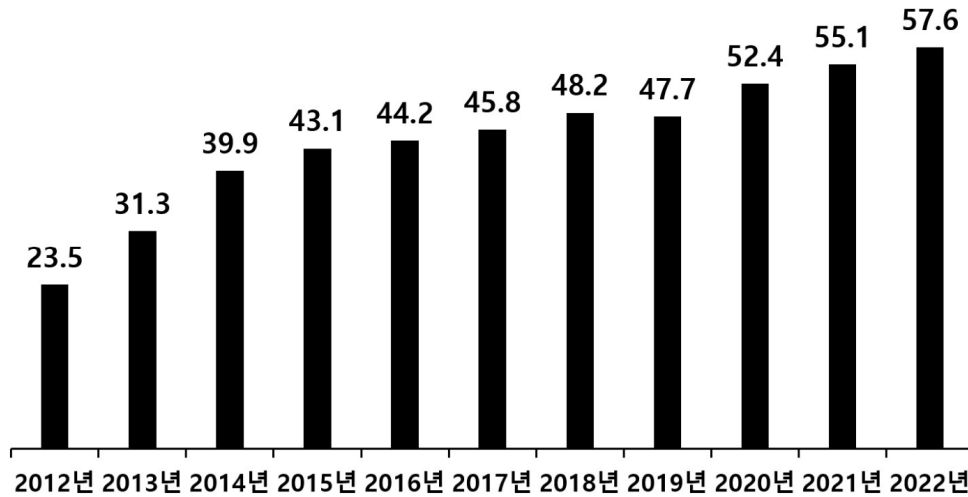
오후 · 문제 3

[문제 3] [가], [나], [다]를 연관 지어 설명하고, [라]를 활용하여 [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SNS(누리소통망) 이용률>

(단위 : %)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2

<성별, 연령대별 SNS 이용률 비교>

(단위 : %)

항 목	성 별		연 령							
	남성	여성	만 10세 미만	만 10 ~ 19세	만 20 ~ 29세	만 30 ~ 39세	만 40 ~ 49세	만 50 ~ 59세	만 60 ~ 69세	만 70세 이상
이용률	58.4	56.8	7.7	55.3	93.3	88.0	75.2	58.6	29.0	3.8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2

[나]

인맥은 흔히 성공의 필수 요소로 간주되며, 사람들은 인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중략)……

이러한 인맥, 혹은 네트워크의 효과를 잘 설명하는 말로 ‘느슨한 연결(weak ties)의 힘’을 들 수 있다. 친한 친구나 가족 같은 ‘강한 연결(strong ties)’ 관계가 아니라 안면 정도 있는 지인이나 친구의 친구들을 통해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느슨한 연결은 특히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이직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과는 서로 네트워크가 겹치니 큰 도움이 안 되지만, 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지금의 인맥과는 다른 더 넓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이코노미스트』, 2022. 10. 1.

뉴 미디어는 기술 및 의사소통 방식의 측면에서 종합화, 상호 작용성, 비동시화 등의 특징을 지닌다. 종합화는 아날로그 시대에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매체들이 하나의 정보망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상호 작용성은 뉴 미디어가 기존의 대중 매체가 지닌 일방향성을 극복하고 송·수신자 간의 쌍방향성을 증진한 것이다. 비동시화는 과거에는 송신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나 프로그램을 수신자가 선택하여 볼 수 없었지만, 뉴 미

디어는 수신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이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볼 수 있게 된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매체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뉴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였다.

출처 : 정탁준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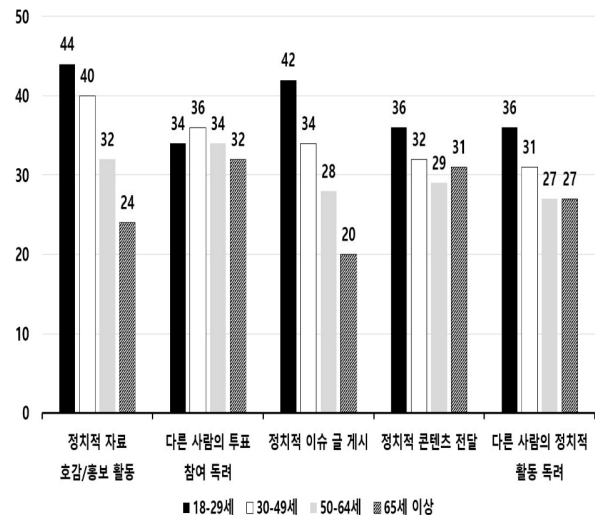
<SNS를 통한 용인특례시의 시민 의견 수렴>



출처 : 『용인특례시 Facebook』, 2023. 2. 24.

<정치 참여 활동에 SNS를 활용하는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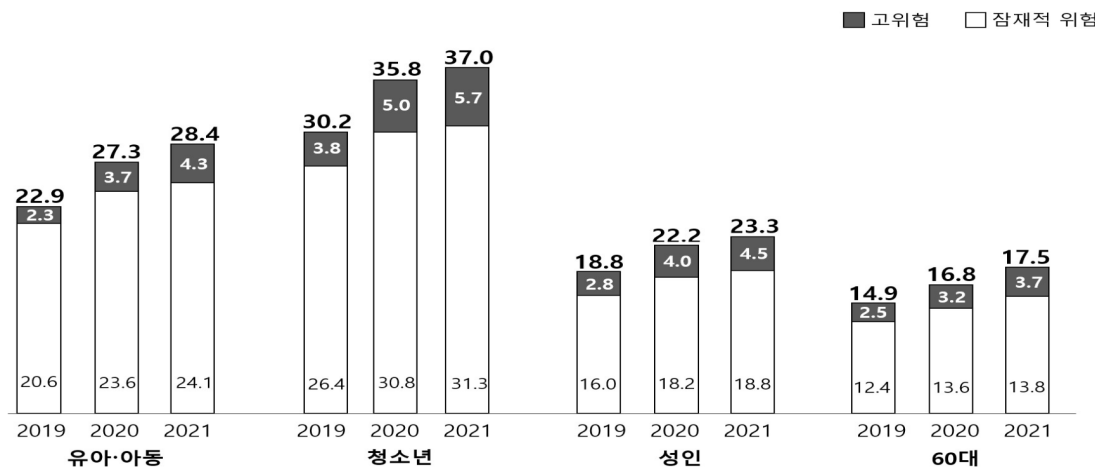


출처 : 『지디넷코리아』, 2012. 11. 4. (출제진 재구성)

[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결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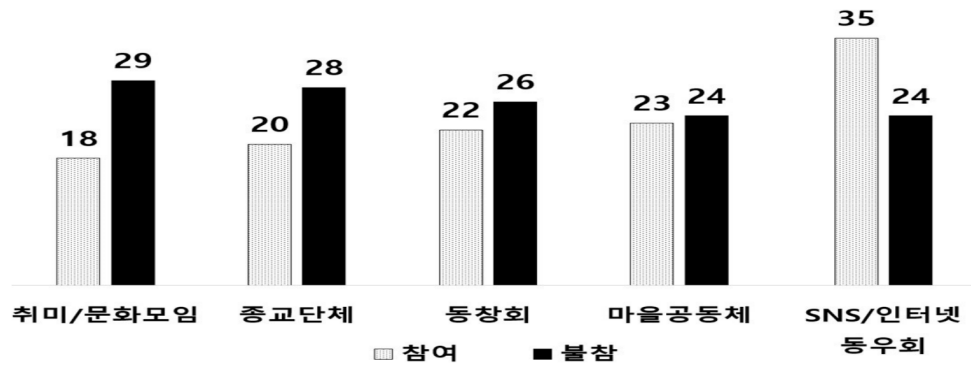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직장인 전모(31) 씨는 한 달 전 가입했던 SNS에서 모두 탈퇴했다. 하루에도 몇 건씩 게시물을 올릴 정도로 열심히 관리했지만 갈수록 자존감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서였다. 전 씨는 “언젠가부터 남들이 올리는 휴가, 맛집 탐방 등의 사진을 보면 ‘내 삶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못하나.’라는 생각에 우울감이 들고 스트레스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막상 SNS를 접고 나니 홀가분하다.”며 “왜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하는지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SNS를 떠나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자기과시성 게시물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범람하는 광고, 가짜 뉴스 등에 지쳐 버린 탓이다.

출처 : 『세계일보』, 2018. 8. 17.

<모임 형태별 외로움 체감도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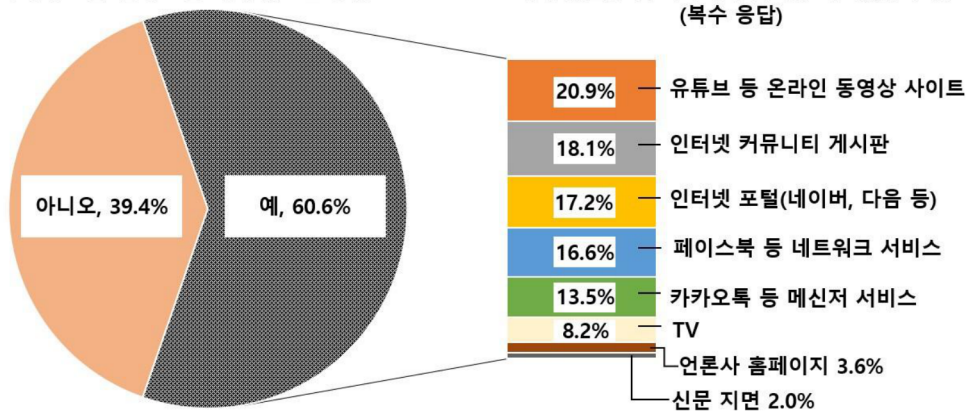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2018

<가짜 뉴스의 주요 출처 조사>

가짜 뉴스를 실제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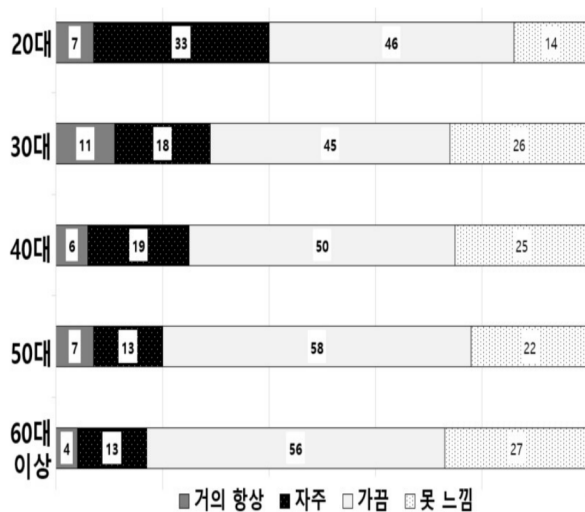
가짜 뉴스를 본 미디어의 출처는 어디였습니까?
(복수 응답)



출처 : 『경향신문』, 2018. 11. 23.

<얼마나 자주 외로운가에 대한 국내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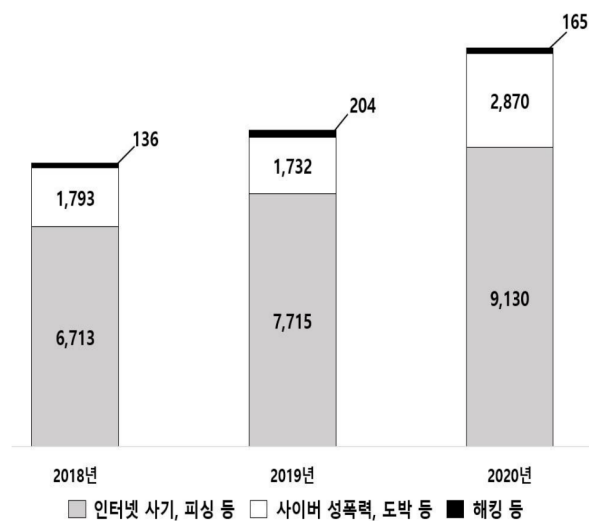
(단위 : %)



출처 : 『한국일보』, 2018. 5. 12.

<최근 3년간 청소년 사이버 범죄 검거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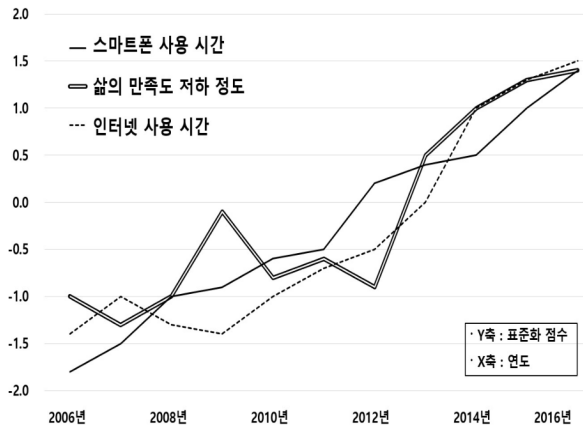
(단위 : 명)



출처 : 『동아일보』, 2021. 7.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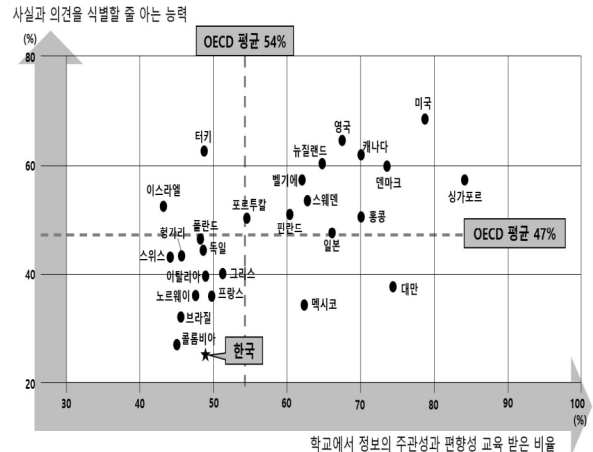
[라]

<스마트폰·인터넷 사용과 미국 청소년 삶의 만족도>



출처 : 『아시아경제』, 2019. 7. 17.

<OECD 주요국의 디지털 정보 파악 능력>



출처 : 『한겨레』, 2021. 5. 16.

영국 전체 인구의 14%인 900만 명이 ‘외롭다.’ 이들 중 3분의 2 가량은 자신의 외로움을 말할 곳조차 없다. 2017년 영국 고독 문제 대책 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의 내용은 영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조사는 2016년 극우파 테러로 사망한 조 콕스 영국 노동당 하원의원의 유지를 받든 것이다. 영국 정부는 생전 자신의 지역구에 ‘외로움 협회’를 만들 정도로 유권자들의 고독·고립 문제에 집중했던 그의 이름을 딴 범정부 위원회를 설립해 13개 시민 단체와 함께 영국의 고독 및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영국은 이어서 2018년 1월 고독 문제를 전담하는 ‘외로움부(Ministry of Loneliness)’를 만들어 고독 문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영국이 외로움부 주도하에 고독에 대한 사회적 처방을 내리고자 책정한 예산은 2,000만 파운드(약 325억 원)에 달한다.

출처 : 『세계일보』, 2023. 5. 15.

정보 윤리란 정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보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정의’, 타인에 대한 ‘해악 금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출처 :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올라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뜻한다.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낸 신문에 실린 자신의 흑역사를 구글 검색에서 삭제하고 검색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구글 검색 결과에 링크된 정보가 합법적인 경우에도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며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잊힐 권리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국내에서도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문에서도 인터넷 이용자의 63.7%가 ‘잊힐 권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7.7%는 ‘잊힐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조선일보』, 2016. 9. 28.

■ 예시 답안

[가]는 최근 SNS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SNS 이용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나]는 SNS 사용의 긍정적 측면이다. SNS는 느슨한 연결의 힘을 통해 다양한 인간 관계 형성 및 개인의 사회화에 도움을 주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새로운 수단이 된다. 반면 [다]는 SNS 사용의 부정적 측면이다. 지나치게 SNS에 몰입할 경우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고, 비대면 소통 증가로 인한 외로움, 인간 소외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가짜 뉴스, 사이버 범죄도 증가한다. 특히 이러한 부정적 측면은 SNS를 더 많이 이용하는 젊은 세대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개인은 인터넷,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 시간을 줄여 삶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가상 공간에서 필요한 정보 윤리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별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해외의 외로움부 설치, 잊힐 권리 법안 사례 등과 같이 SNS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

■ 채점 기준

◆ 채점 기준

- [가]에 제시된 SNS 확산이 [나]에 제시된 새로운 인간 관계 형성, 뉴 미디어 등장, 정치 참여 확대의 새로운 수단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가]에 제시된 SNS 확산이 [다]에 제시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 피상적 인간 관계, 외로움 증가, 가짜 뉴스 확산, 사이버 범죄 증가라는 부정적 측면과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다]의 부정적 측면이 특별히 SNS를 더 많이 사용하는 젊은 연령대에서 더욱 심각함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채점 기준

- [라]에 제시된 도표들과 정보 윤리에 대한 설명을 활용하여, 개인의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 시간 개선, 정보 윤리 실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별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필요함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라]에 제시된 해외의 외로움부 설치, 잊힐 권리 관련 법안 사례를 활용하여, 정부가 SNS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함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AI 논술 자동 첨삭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